

월간 충현



1988
3·4
충현교
대중문화
잡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 간의 인사는 '예수 부활'이었다. 성도의 부활은 세상의 영광과는 죽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이다.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연못에 물강아지(잠자리가 되기 전의 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할아버지 물강아지가 어린 물강아지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자기들이 사는 연못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자기들에게 종종 놀러 오는 개구리를 예로 들었다. 개구리는 잠시 물강아지를 방문했다가 사라지고 하여 할아버지 물강아지가 뒤를 밟아 보았다. 그랬더니 위로위로 자꾸만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렸다. 연못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없더니 갑자기 침방하고는 다시 나타났다. 여기까지 이야기 했을 때에 개구리가 다시 나타났다. "개구리 아저씨 어딜 갔다 오세요?" "그야 다른 세계에 갔다가 오지" "그곳은 어떤 곳이지요?" "거긴 물이 없는 곳이야" "물이 없다니요? 그럼 죽어 버리게. 그리고 해엄도 못치고"

개구리의 설명은 온갖 꽃이 다 피고 새가 노래하는 기막힌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더 기막힌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도 가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할아버지 물강아지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갈대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닌가? 연못 속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줄초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고 잠자리는 계속 소리쳤다.

죽음 너머의 새 하늘과 새 땅, 죽었다가 다시 사는 성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단순한 육체의 부활과는 또다른 차원 높은 부활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임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롬 6:10~11)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 사는 부활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며,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는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해 놓고서는 죄의 질서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 부서운 일이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가슴으로서는 내세에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고, 삶에서는 죄의 질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의(義)의 파종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주간 김장근 목사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 16권 2호 통권 제 145호

五대목표
 천국일군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

권두언 /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	주 간...	2
이달의 말씀 / 숨지 않는 신자가 되려면	김창인...	4
충현칼럼 / 감사가 많은 한 해	최석주...	6
이달의 기도 / 은혜와 진리 충만한 교회되게 하소서	오태희...	7
특집 I / 한국교회의 성장과 문제점	편집실...	8
부활절 특별기고 /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	유국남...	20
부활절의 현대적 의의	남창우...	22
기독교문학 산책 / 톨스토이 부활	편집실...	24
신학의 오솔길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편집실...	26
특집 II / 이종윤목사님 위임예배	편집실...	27
살아가는 이야기 / 가난한 마음	이건숙...	35
독자란 / 용기있는 결단과 능력을	최연옥...	36
· 자유로이 주님에게 길들여지기를	백희연...	36
· 말과 행실로 본을	김종신...	37
· 대화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김광호...	37
· 둘이만 아는 미소	김정연...	38
· 자매님 승리하셨습니다	남숙자...	39
· 일대 일 전도	박운석...	40
·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양명자...	40
· 강한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김지혜...	41
· 충현교회 어머니께	인천에서	42
· 작은 깨달음	박애란...	43
평신도를 위한 신앙강좌 / 인생은 내세를 준비해야 함	이성근...	44
성도의 건강관리 / 젖과 여인의 의무	이종석...	45
추천도서 / 예수의 기적	이조웅...	47
용어해설 / 중생	이양우...	47
교회사의 순례 / 비잔티움시대의 교회부흥과 교회내의 쇠퇴요소	김연이...	48
집중취재 / 교구위원회	조영길...	50
교회소식	편집실...	52
충현도서실안내	편집실...	55
교우동정	편집실...	56
교회행사 · 편집후기	편집실...	58

□ 표지 사진 설명 □



충현교회 제7대 당회장으로
위임 받으신 이종윤목사님. 하
나님과 회중 앞에서 주님의 피
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며 목
양하실 것을 다짐하는 모습.

표지촬영 : 김종태 기사

숨지 않는 신자가 되려면

창세기 3장 8—13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 8)

김 창 인
(원로목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고 숨는 불쌍한 사람은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날에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앞으로는 바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 가지를 먹고 입고 쓰면서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 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내용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은밀히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할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이전 같은 아담과 하와가 뛰어 나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접하였겠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인생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디엔가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아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마침내 아담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 10)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창 3: 11)

이때에 아담 하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가소롭게도 아담이 핑계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 12)

“으흠,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

기네가 범죄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핑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물론 잘못이지만 그 보다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은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가 잡힌 다음에라도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결심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더러운 물욕과 음욕을 채우려고 은밀히 죄를 범할 계획을 세우고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거짓말로 죄를 숨기려는 일로 시작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면 체면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친척의 아들을 죽인 자가 “아이구, 이렇게 억울하게 죽다니”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뻔뻔스럽게 장례에 참석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죄를 숨기려다가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죄를 숨긴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고야 맙니다. 죄를 숨기려는 것은 하나님을 입신여기는 교만이고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핑이 매를 피하여 숨는다는 것이 머릿만 가랑잎 속에 파묻고 몸은 밖에 그대로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숨었거니’ 하고 미련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자신이 범한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마침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형을 받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숨어서 죄를 계획하고 숨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거짓말로 숨기려는 가증한 생활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지 않는 신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와 의논하고 누구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날까 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 안에 겸손히 숨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중나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무서워 숨으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범죄한 자는 산에도 바위에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떨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은 신자는 세상을 겁내는 법이 없고 하나님 품 밖에 나간 자는 세상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건축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밖에서 범죄하고 그 죄를 숨겨 두는 바보가 되지 말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음을 들고 백두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ㄴ

감사가 많은 한 해

최 석 주

(장로·재정위원장·건축부위원장)

금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다.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 돌아와 세운 충현교회가 35주년을 맞은 해이다.

18명으로 시작된 충현교회는 부흥발전을 거듭하여 2만여 성도의 요람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등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34년 8개월동안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진액을 짜 바치며 애쓰신 김창인 목사님의 수고의 열매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시킬 것을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듯이 김창인 목사님을 초대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종윤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모시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이다.

새성전 건축도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6월에 완공하여 9월에 헌당을 하게 되면 명실공히 새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6월 완공 9월 헌당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줄라 매면서 최선을 다 하여 왔듯이 남은 몇 달은 더욱 눈물로 기도하며 바치는 헌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지어져 가는 충현교회를 보시고는 “기도로 짓는 집”이라고 하셨다. 큰 부자도 없는 충현교회의 형편을 볼 때에 그러하다. 이제 마지막 한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 개미는 개미 힘으로, 황소는 황소의 힘대로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면으로 지쳐 있을 때에 무지개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다. 다만 온 정성을 쏟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보라고 부탁하고 싶다. 성전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오고 오는 후세에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더욱 그렇다.

새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민족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을 것이고 세계를 교구로 삼아 주는 교회로서 청년기에 접어든 의젓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금년은 설립35주년이 되는 해이고, 당회장 목사님도 모시게 하시었다. 그리고 새 성전도 봉헌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 해이다. ✎

“은혜와 진리 충만한 교회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입으시며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주님의 수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십자가 상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벅찬 감격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욕심을,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만 생각하던 생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 하나 하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내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충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명령 잘 감당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월에 성전건축공사가 마무리 되게 하시고 9월에는 헌당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후임 당회장 목사님 모시는 일 순탄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이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이 땅위에 상물되어 흐르게 하시고 다시는 권력을 빙자한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88 서울 올림픽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경제의 발전도 허락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허리를 자른 155마일의 휴전선,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강도 만난 이복의 내 백성들을 붙잡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고난주간에 —

오 태 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교회의 성장과 문제점

이번호에는 특집으로 “크리스차니티 투데이”지에 실린 글을 번역하여 실었다. (편집자주)

한국교회들은 대형화되고 있다. 수도 서울에서 신자들이 주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1,000여개의 교회로 나갈때 생기는 교통체증과 마비는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잘 반영해 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5십만성도가 있고 영락교회는 4만의 성도 그리고 성락침례교회는 1만5천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 수효는 실로 엄청난 것이고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해 보면 놀라움과 신비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기독교인들은 이 조그만 한반도를 교회부흥과 성장의 비밀을 알게 하는 순례지 메카(Mecca)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장이 경이로운 일어진 하지만 이는 경제발전, 변천하는 정부, 세속정부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진통하는 교회라는 것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느 기독교대학총장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20%를 차지할 때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때가 되었읍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런 때를 맞추어 지난 5월 본지(Christianity Today Institute)에서는 3주동안 한국에서 교회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통해 4가지 중요한 문제—즉 한국의 교회성장원인(서양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냐의 여부), 한국교회의 영적상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사회속에서 교회의 역할(특히 교회는 현재 정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이를 조사 연구한 사람들로서는 대만에 있는 아시아 신학협회 총무인 로봉링박사,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신학대학의 윌리엄 멘지스교수(William W Menzies), C.T.I 편집자 린 크리더먼(Lyn Cryderman)와 본지(Christianity Today Magazine)의 편집자 해롤

드 스미드씨(Harold B. Smith) 등이다. 또 이를 도와 주신 분으로는 프린스턴 신학대학 명예교수이며 서양인으로서 한국교회를 연구하신 사무엘 모펏트박사(Samuel H. Moffett)이다.

서론

M. A. S. H 이후의 한국(MASH는 미국 TV에 한국전란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연속방송극으로 나온 프로그램 이름이다)

서울 김포공항에 들어서면 30세 이상의 한국인들까지도 믿기 어려운 광경—즉 서울이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로 변모 되었다는 점—이 펼쳐진다. 30년 전만 해도 수도 서울에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빌딩이 거의 없었고 허름한 판자촌들과 먹을 것을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찼었다. 6.25 전쟁때 공산군에 의해 두번 빼앗겼다가 미군에 의해 두번 되찾은 수도 서울은 한국을 갈라놓은 38선에서 30분거리 밖에 되지 않는 분쟁의 중심지였다. 1953. 6. 27 휴전이 조약된 후 이런 서울을 재건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사실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한국인은 서울을 재건했고 이에 대해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한국동란에 집이었던 곳이 이제 변하여 거리가 된 곳을 지적하면서 로박사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30년전에 가장 큰 건물은 영화관이었지만 오늘날의 가장 큰 건물은 금빛을 띤 피라미드형 63층 건물이다(이 건물은 아시아에서 최대의 건물로 기독교 사업가인 최순영장로에 의해 지어졌다). 과거에는 구걸하는 자가 많았지만 이제 거리는 8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 힐튼, 웨스턴, 웨라톤호텔에 이르는 넓은 길이 있어 부흥일로에 있는

자본주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GNP는 1년에 87달러였다. 지금은 2,500달러에 이르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철, 섬유, 조선,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20년동안 170배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기적, 더 나아가 한국의 기적이라고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곳은 한강이다. 여의도로부터 도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강은 오랫동안 식수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으로 이용되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 죽은 강이 되어 가고 있었다. 여름날 한강에서 나는 악취는 서울의 상징이 될 정도였다. 70년대 한강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윽고 한국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한강은 새롭게 변화되어 악취는 없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수영도 하고 배도 탄다. 한강의 기적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기적 5십만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짓게 되는 기적에 이은 또하나의 기적이다.

전통문화 속에서 기독교

5천년 역사를 지닌 한국이 30년 동안 이루어온 성장은 한국사람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놀랄만한 적응력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우리 조사팀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옛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한데 어울려 있음을 즉시 알게 되었다. 여자들은 고유의상 한복이나 정장을 입고 남자들은 정장한 채 오랄 로버트(Oral Robert)의 아들 리차드(Richard) 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석가탄신일의 행사가 화려하게 폐막하고 있었다. 이 행사 중에 등불행렬이 있는데 그 등불행렬은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만큼이나 반짝였다.

한국에서 주요 두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이다. 불교는 2천년동안 한국의 역사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불교의 석가상과 사원은 시골이나 산중 속에 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산중종교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신실한 불교신자는 불교가 현대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불교만을 전도할 수단으로 전통유산을 이용했다. 이는 곧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은 단 하루뿐이지만 한국인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불교신자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게된다. 게다가 스님들은 점점 산에서 내려와 도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개종자를 찾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추세에 따라 이리시에는 불교찬송가와 주일학교가 있는 불교식 교회가 있다. 이리시에서 일어나는 복음 전도열정은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는 한 직원에 의하면 불교사회는 외관상 평화를 유지하는 듯하나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불교신자들은 그들분야에서 사소한 일에도 기독교인을 고용하는데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같은 면은 한편으로 한국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인구 중 25%가 교인이다(불교신자는 30%미만) 보수층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7~8백만인데 2백만은 천주교인들이다. 1980년도 초기에 실시한 2개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1982년에 행해진 첫번째 조사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불교가 29% 기독교가 20%(기독교 16%, 천주교 4%)으로 나타났다. 1983년에 실시한 두번째 조사는 18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30.4%가 기독교인(기독교 24.3% 천주교 6.1%)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조사에 의해 확인된 이 조사들은 분명 불교신자들이 백만 정도 줄어 들고 있는 반면 기독교인수(특히 젊은층)는 증가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가족이 100년동안 한국의 복음화에 관심을 써온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인 사무엘 모펫트박사(Samuel Moffett)는 한국의 복음의 폭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 아버지께서 1890년 서울에 도착했을때 만명 내지 만칠천명의 천주교인들이 있었고 1889년 기록을 보면 개신교는 74명이었습니다. 40년후 내가 어린 소년으로 한국에 왔을때 기독교인은 415,000명으로 인구의 2%였습니다. 1955년 다시 한국에 왔을때 1,117,000명으로 인구의 5%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인들은 천만이 넘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890년에는 100명중 교인이 1명이었고 1930년대에는 50명중에서 1명, 1955년에는 20명중에 1명이며 오늘날은 4명중 1명입니다.”

이 통계는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과 전주 대구를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각 교회들의 성장—소수 몇명으로 시작했다가 수천명의 신자를 갖게된 것—들은 사실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도 이를 당연히 여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헌신할 뿐인데 이러한 성장은 놀랄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제 1 장 대형화 되는 교회건축

4만명의 성도가 있는 영락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서 1945년말 한경직목사를 주축으로 27명의 성도로 시작되었다. 한경직목사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처음엔 일본인에게 그 다음엔 북한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후 한국전쟁 중에 5백만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북에서 월남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의 영적인 우두머리이다. 영적인 거인 그에게서 20세기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국인의 믿음을 들을 수 있다”는 한목사의 84세나이는 분명 한국교회성장을 나타내 준다.

선교사: 한목사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3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의 본거지였다. “그 이유는 모든 면에서 앞장서는 선교사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1884년 처음에 한국에 올 때 감리교 선교사들 처럼 역사적 정통성에서 인정하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지도를 외국인으로 하려는 천주교와는 달리 교회를 한국화하고 한국인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다.

북장로교회(U. S. A)는 네비우스 계획*을 내세워 교회에서 선교지도가 자립, 자생 그리고 자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한국인은 새로운 파의 기독교가 한국인으로서 긍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종교임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예수의 메시지를 외국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면은 일본식민지대와 공산당이 쳐들어 왔을 때도 기독교인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국민적인 문화와 더불어 최고의 종교가치를 두고 있는 불교의 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한국인의 마음에 저울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박해: 아시아에서 독특한 기독교는 한국에 제국적이고 생소한 것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메시지로 들어왔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30년동안 한국인에게 강요했고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박해와 간접적으로는 회유책을 써왔다. 후자의 유명한 예는 신사참배이다. 신사참배는 2차세계대전동안 계속되었는데 일본은 신사참배를 교회 예배 순서에 첨가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하였지만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남아 있는 기독교의 시험 사건이었다. 보수파는 일본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바알에게 무릎조차 꿇지 않으려는 많은 교회들은 장로교 총회에서 벗어나 고신파를 형성하게 되었다(장로교고신파는 3번째로 큰 장로교회이다). 한목사님은

*네비우스 계획

나의 아버지 사무엘 어스틴 모페트(Samuel Austin Moffett)은 1934년 한국 기독교 전과 50년을 돌이켜보고 “5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전했 뿐이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 말씀은 옳다. 그러나 다른 주변의 요소들도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담당했다. 1890년 북장로교회(U. S. A)는 소위 네비우스 방법을 채택했는데 프린스턴 졸업생 이름을 딴 것으로 선교 전략에 있어 3가지 자치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 네비우스 방법은 한국교회 내에서 선교지도는 자립, 자생, 자치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복음의 독립성, 평신도 복음주의, 자치재정책임에 대해 강조할 뿐더러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체계적으로 필

요한 여름, 겨울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양 캠페인으로 확산되었고 이 성경공부를 통해 한국의 믿음을 이끌어갈 선두대원이 나왔다. 물론 그들은 외국선교사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닌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다. 네비우스 계획에는 비평의 여지도 있다. 이 네비우스 계획은 한국인의 평신도의 성경공부와 지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회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 폭넓은 신학적 입장과 성숙한 비평적 판단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어떠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해도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파는 기독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파이다.

신사참배와 그의 일본의 악랄한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자신도 이로인해 3년간 설교하지 못하게 되어 그동안 고아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한다. 1945년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된후 한목사님은 27명의 성도를 모아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에 영락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최초의 교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에서 온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근절시키고자하는 계획아래 교회박해를 시작한 것이다.

영락교회 4만의 성도 모두가 공산주의의 박해의 영향을 받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40세 이상된 사람들 중에는 부모나 형제가 이로인해 죽었거나 38선 넘어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다. 38선 너머 그들과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1953년 이후 북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없다.

이리하여 일본의 박해와 공산주의 박해로부터 한국인은 안전, 희망, 자유 그리고 평화를 더욱 크게 갈망하였고 이 갈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적인 힘

한국의 교회성장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받은 한 경적목사님은 반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외부적으로 서양선교와 정치적박해와 한국인의 특별한 내부의 힘 사이에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미국 사람들이 배워야하며 한편으로 한국인의 독특한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은 한국인의 내부의 힘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어떠한가를 말해줄 뿐

아니라 신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한국사람의 정신적 풍요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신적인 기도 : 불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이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나 한국 기독교가 기도의 생활*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지배적으로 기도의 문화형성에 이바지했다. 새벽기도회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줄 곳 있어 왔고 더욱 최근에 조용기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영향으로 수 많은 산기도가 날마다 이어지고 모든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철야예배(금요일)를 하고 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 : 유교윤리에서 나온 학자에 대한 존경심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반영되고 있다. 목사는 새벽예배와 철야예배에 참석하고 규칙적으로 심방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간단히 말해 교역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끝도 없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일요일오후뿐이다. 교역자들은 좀처럼 연구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서울 피어슨신학교 전호진씨는 “일주일에 12번 내지 13번 설교를 해야하는 목사는 힘있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목사는 머리가 아니라 발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함으로서 지도자의 문제점을 밝혔다.

평신도의 헌신 : 교역자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일을 함께 뛰고 있는 헌신적인 평신도들이 하고 있다. 평신도들의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헌신적인 평신도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고 교회의 모

*많은 기도의 군사들

한국인들이 기도의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번 들었을 것이다. 분명 그렇다. 할렐루야교회 한 장로는 자신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고백한 바 있다. 새벽기도회, 철야예배 그리고 수많은 산기도는 이렇게 은퇴한 장로같은 수많은 기도자를 부르고 있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뜨거운 정열과 방법이다. 한국기독교회회는 3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기도와 금식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100명이 이에 응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새벽예배 : 조사 대상인 목사 100%가 새벽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80%가 한 시간의 개인 기도를 하고 있다. 목사는 대개 새벽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로 4시 30분에서

5시에 시작된다. 약 성도의 10%가 규칙적으로 모이는데 보통 250~300명의 참석자가 있다는 것이다.

철야예배 : 목사의 50%가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한다. 보통 철야예배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이며 도중에 몇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산기도가는 것이 보통이다. 철야예배의 유익함은 개인기도의 충분한 영적인 힘과 영적 교제이다. 한편 철야예배의 부정적인 면은 영적인 교만과 육체적인 피곤이다.

금식 :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소수는 40일까지도 금식한다. 금식기도의 이유는 ① 신앙성장 위해 ② 가족 문제 ③ 육적 치료 ④ 문제 해결을 위해 —를 들 수 있다.

든 예배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번 10~12명씩 모이는 구역예배도 참석한다. 한국교회조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역예배는 복음전파에 있어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조용기 목사에 의하면 이 구역예배는 배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5만구역의 5십만 성도가 10만구역의 백만성도로 된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이는 1990년대 여의도교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담대한 복음전파 : 전주에 있는 어떤 교인이 익살스럽게 한국시골사람을 동양의 아이랜드인이라 한 바 있다. 한국인은 책략적인 일본인과는 다르게 솔직하고 대범하다. 그 결과 한국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나 천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당신은 교인이십니까?”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한다.

한편 성도가 증가하고 교회기금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인들은 복음사업을 해외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오지의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6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아시아는 물론 서양에 까지 보내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경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은 한국교회가 이로 인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격적이기 쉬운 한국인들은 신학론적, 원리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장로교회는 32개의 여러파로 나누어졌다. 감리교는 4개 오순절파는 7개, 침례파도 4개로 각각 분열되었다. 정부의 종교억압이 교회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해하기도 하듯 분열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사무엘 모펏트씨(Samuel Moffett)는 한국에서는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는 분열되기 전보다 단시간 내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신비적인 것에 대한 믿음 :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문맥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신승배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사탄, 성령, 어떤 영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일련의 부흥운동—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 대중예배 때의 합심기도,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 교파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신비적인 힘, 특히 성령의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번성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침례교회인 성락교회에서는 규칙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통해 몸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이 교회 설립자이자 목사인 김기동목사는 이러한 것은 “요한 일서 3:8—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라”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목사가 예수이름으로 사탄(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여러분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점을 교인들에게 역설하고 있고 그의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1만5천명의 성도들이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적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실 생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보다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비난 자들에 의하면 기적에 사로잡히는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것이라 한다.

제 2장 양면적인 축복

문화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정치적 압박과 핍박을 능히 극복했다는 점이 오늘날 교회의 교인수를 증가시킨 원인이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축복에 덧붙여진 복음의 축복은 한국기독교 사상과 신학에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놀랄만치 급증하고 한국교회도 부흥일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틀림없다. 어떤 한국인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최순영씨는 이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의 큰 사업가인 그는 건물을 짓고 프로 할렐루야 축구단을 입단시키고 재정에 부딪힌 기독교대학을 구해 주었을 뿐 아니라 4천여 개에 이르는 교회를 짓고 개척하는 데 도왔다.>

김장인 목사도 물론 이 축복을 부인하지 못한다. 김목사는 합동측의 가장 큰 총현교회의 목사로 1만 2천명의 양을 양육하고 있다. 한편 총현교회는 선교훈련을 위한 여러 장소와 교역자들을 위한 사무실들을 갖춘 고딕스타일 건물도 200억원의 건축비가 들었다.

한편 평신도 모두도 신의 도움으로 인한 경제적, 복음적 축복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서울, 대구,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교회 건물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총현교회,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시설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도시 성도들은 교회 성장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교회 건물들이—유치원, 선교훈련센터, 독신여전도사를 위한 집 그리고 교회 사무

실—필요하다고 느낀다.

미국에서 성도들은 대체로 교회 건축계획에 번거로워 하지만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건축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대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과는 달리 한국인에게 있어 교회는 클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순영씨, 김창인 목사 그리고 평신도들은 경제적 부흥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신학적인 위험도 인정하고 있다. 위험이란 곧 서양교회가 보여준 교훈 즉 교회운영이 힘들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순영씨는 교회관리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고 그의 교회의 교회 재정은 선교와 구제를 하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시골교회를 지원하는 데 이용된다고 밝혔다.

1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시골교회의 목사 봉급은 형편 없어서 시골교회는 도시교회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도시 큰 교회는 유능하고 잘 훈련받은 목사가 이러한 개척지를 택하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활하도록 애쓰고 있다. 어떤 교파에서는 목사를 시골로 보내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경험치 않은 젊은층의 75%가 서양교회가 보여주듯이 물질주의로 부패되고 있다. 이런 점을 한탄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인 김명혁씨는 “교회가 사회발전을 변모시키기 보다는 사회발전의 양상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 목사를 대통령으로 비꼬아말한 한 경관의 말을 전하며 이는 “교회 목사가 수 많은 비서들에 둘러싸여 있고 침대와 목욕탕이 딸린 넓고 화려한 사무실을 갖춘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런 결과 교회는 사회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학식과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미국 장로교 영향과 또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학자를 존경하는 풍습의 영향아래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대학, 기독교학회 성경연구가 전체 국가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단체가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영적이며 신학적 입장은 약하다. 그래서 나이든 목회자들은 기독교 단체들의 기준이 보잘것 없음에 한탄한다.

물질적인 윤리가 주요 복음적인 교회들(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과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크게 강조하는 오순절 혹은 회중교회 사이에서 분

명한 차이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숫자적으로 엄청난 교인을 이끄는 조용기牧사는 이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자이다. 주님께 죄의 용서를 맡겨야 한다는 분명한 복음과 더불어 그는 매주 축복의 이론을 강조한다. “주님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해결 될 것입니다.”

조용기목사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의 신학적인 토론이 시기심을 포함한 개인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 진지한 성령 강림의 이론을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대 철학교수 손봉호씨는 한국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의 신학은 매우 세상적이다. 우리 한국인은 이 지상에서 축복을 갈구한다. 어느 누구도 건강과 세상에서 부를 설교해야 한다는 유희를 물리치지 못한다. 전쟁 이후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인은 다른 나라보다 낙관적이라 말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지극히 낮다.”

제 3장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해답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전두환 정권 아래 있는 현 정부는 교회의 목표를 낮춰 놓았다. 87년 이해에 교회의 일시적이나 가장 핵심적인 중요 문제는 한국의 정치 미래이다. 한국인들이 현 정부에 한결같이 불만족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이 불만족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에 고심하고 있다(단순히 다음 선거에 현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 이외에).

실제 대학생들과 신학생들은 격렬하게 시위하고 있다. 반면 오래된 교회는 한국 민주화가 40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북한이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정부를 완전히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생 시위는 거의 자제되어 가고 있다.

전주대 총장 이종운 박사는, 교회 지도자나 학생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각각 국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이러한 관심을 나타내는 기독교적인 방법은 정부에 대항해서 시위와 데모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와 사랑과 기도라고 말한다.

서울 미대사관 정치부에 근무하는 에드워드 덩(Edward Dong)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

나든 간에 한국인이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근본 이유는 전두환 정부가 불법이며 부도덕하기 때문이라 한다.

서울의 봄(한국인이 민주주의를 향해 비약할 때)은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구테타를 일으켜 권좌에 오른 후 출판을 검열하고 김대중씨와 같은 반대파를 억압할 때 냉각으로 변했다. 1980년 이 불법문제에 격분한 광주 데모 학생들 중 200명(어떤 이는 2,000 명으로 주장)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신비에 가려 있고 전두환 대통령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덩(Dong)은 전두환 대통령의 부도덕성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한국인들은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유지해 주기를 바랐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이 두 목적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지도자로서 부귀를 얻었고 그의 가족들은 정부의 고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문제는 교회가 비판적이었다. 80년대 초 한국 천주교가 명동선언을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였다. 선서의 내용은 "교회가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저항할 수 없다면 도덕적으로 정부에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는 초긴장하여 이 정치적 도덕성을 지켜본다. 천주교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기독교가 전두환 정부의 눈총을 받고 있을 때 정부가 공격한 것은 성장하는 교회였다. 정부는 교회가 주는 정치적 영향이 분명히 정부에 미치게 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주는 한편 기독교의 분열과 교회가 정치적 소리를 높이는 경향에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기독교방송국의 뉴스와 해설을 금지시켰고, 한편 명동성당 앞의 최류탄 냄새는 외부에서 천주교 성직자의 정치적 소리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의 비난을 일으킬 또 다른 두 사건은 국가적으로 단군을 숭상한다는 것과 기독교인의 안식일을 변경하자는 일이었다. 후자에 대해 살펴보면 1985년 육·해·공군에서 일요일을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고,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쉬려는 계획이 나왔다. 단군숭배라 함은 전두환 정부가 민족주의를 고무시키기 위해 한국인의 전설적인 인물 단군을 숭배하려는 의도를 내놓은 것을 말한다. 그 어느 것도 초기 계획 단계를 넘어 실천되고 있지 않으나 이 두 문제는 인간 권리 침해에 대한 비난과 제도적 혁신을 일으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종교권리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보여 지지만 한국에서 교회는 권력의 교배를 인수받으려 하기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국가를 기독교에 관련시키려 하는 것이다.

교회는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동환 그는 존경받는 기독교인이며 학자이며 반정부 운동가이다. 사회적 양심수로 투옥된 그는 민중신학 즉 가난한 자의 해방신학을 다듬어 놓은 자이기도 하다. 민중신학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그스타브 구티에르즈(Gustavo Gutierrez)의 해방신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두 민중신학은 압제와 착취가 드러나는 구조적인 악습에서 출발점을 찾고 있고 교회의 사역은 압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이런 근거에서 문동환씨는 민중이 전두환 대통령을 물아내고 직접선거와 완전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일을 따라야 한다는 감정적이며 그러나 합리적인 논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제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수동적인 대응만이 허용될 뿐이다. 이 점에서 문동환씨는 "폭력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정치에 관한 대응책은 한국교인의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말이다. 그들은 저항이라는 말에 회의를 갖고 정신적인 신앙에 사회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을 비난하고 지나친 신학사회주의에 인상을 쓴다.

이종윤박사는 "민중신학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사회가 부자와 빈자 혹은 압박자와 압박받는자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 성도에게 책임있는 사회를 설립하도록 기도하게 하고 정부관리에게 도덕적이며 영적인 문제에 관해 권면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윤 박사가 밝히려는 한국 다수가 교회가 정부를 이해하는 출발지점이다. 한편 이박사가 밝힌, 진리(복음)를 말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 김명혁교수는 민중신학과 복음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분리시켰다.

• 우리의 제일목표와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복음운동과 세속적인 삶의 기준이 팽배되어 있는 한국교회 내에서 성경적인 삶에 두고 있다.

• 교회의 정치 개입과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역할이 아니다.

• 교회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기독교인은 능동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을 함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은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한다.

• 현재의 다원론적인 사회, 정치 체제에서 기독교의 믿음을 주장하는 신정국을 옹호하는 것이 사실이나 기독교를 정치나 사회운동을 하는 힘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중종교나 혹은 국민주의로 축소시키므로써 기독교를 정치화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 폭력과 반란에 의한 변화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의 수단과 도덕적인 설득으로 정당하고 동등한 사회가 설립된다.

제 4 장 사명을 원하는 젊은이들

“만일 네가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 살면서 그를 본받고자 한다면 사회는 변화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원설씨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말은 결코 정치적 관념으로부터 한발짝 물러서려는 변명이 아니다. 대신 그 진술은 정치적 구조가 변화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국민의 25%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도 변화는 서서히 이룩되어져 왔지만 민주주의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풍족하리만큼 그렇게 빠른 변화는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이원설씨가 총장으로 재직중인 대전 한남대학교와 한국의 여러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여러 달 동안 정치적 풍자 전통 가락에 맞춘 반정부 노래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위가 뒤범벅 된 학생소요가 들끓었다.

이러한 학생시위는 월남전 때의 학생시위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즉 한국의 반정부시위는 자발성 보다는 형식적인 면모를 좀 더 띄고 있다.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어느 오후에 발생한 시위를 적절한 예로 들 수 있다.

약 500여 명의 무장한 전투경찰들이 학교 정문에 배치되어 있다. 아무도 특별히 관심을 나타내거나 동료

*북한 : 희망의 표시

한국의 모든 교회는 남북통일과 북한에 기독교사회가 건설되기를 기도한다. 공산주의가 제 2차 세계대전 후 북한을 장악한 후 김일성정부는 모든 종교적 믿음과 유산의 흔적을 없앴다. 한때 기독교 활동이 뜨거웠던 곳(평양은 인구 75%가 기독교인들이었다)이 이제는 김일성 부자의 우상에 의해 세속화된 사회가 되었다. 북한에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고 북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허사였다. 하나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정열은 아직 한국에 남아 있다. 기도가 계속 줄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충현교회 김창인목사를 위시해서 몇 사람들은 38선을 넘어갈 때를 위해 성경과 기본 생존기술을 선교사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몇 게임을 주최한다면 선교사들이 38선을 넘는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 따르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북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말한다. 한국이 북한의 선교에 낙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들이 있다.

① 북한의 모든 집에 라디오를 갖는 것을 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지만 이 법이 남한에서 보내는 기독교방송을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② 중공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켜트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은 북한을 자유스럽게 드나들고 있다. 그러므로 중공인이 성경과 기독교 책자를 남한에서 가져다가 북한에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평양 가기를 원하셨죠” 호봉린씨는 비무장지대 언덕에서 서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명령했다”라고 쓰셨죠.

그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리라 믿고 계속 기도한다.

의 빛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지루할 뿐이다. 학교 안은 평상시의 상태를 보여 준다. 즉 책을 든 학생은 강의실로 들어가고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3시쯤 시위가 시작된다. 신호를 계기로 거의 동시에 학생들과 전투경찰이 대치한다. 시위가 벌어지는 무대는 교문과 교문 앞 거리이다. 교통은 차단되고 진압복을 입은 전투경찰들은 마치 우주 전쟁에서 나오는 우주군인들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보호망을 높이 세운다.

학생들은 덜 조직적이어서 돌, 병 그리고 화염병으로 무장하여 경찰과 대치하게 된다. 10분내에 학생들은 행동을 개시하며 정치적 드라마가 연출된다. 돌이 날아와 보호망을 때린다. 그래도 전경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고 있다. 양측 다 상당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담장을 밀고 나가지 않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전투경찰도 기다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듯하다.

그러나 20분 후에는 최류탄이 장전된 총을 가진 제2저지선에 있던 전투경찰이 나타난다. 6,7발의 최류탄이 집중 사격된 후 학생들은 흩어진다. 파편이 난무

한 거리가 말끔히 청소된다. 그리고 최류탄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 손수건을 손에 대고 교문에서 멀리 떨어져 학생들이 오고가는 사실 이외에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된다.

“시위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이지요”라고 이종윤 박사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시위를 언론과 의사의 자유가 보장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위가 종교에 관심이 있고 또 종교가 정치조직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영적인 고통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하바드인 서울대학교에선 기독교 학생들의 평화의 중재자로서 성경적인 명령과 비도덕적인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정치적 이념 문제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이상적이지 못한 정부하에서 기독교적인 것이 실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서울대 손봉호 교수는 “소극적 다수의 학생들은 적극적 소수의 학생들을 동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학생들은 적극적 소수의 학생들과 맞설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과격 학생들은 반정부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연주

김득수씨는 1950년 11월 20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은 공산당이 그와 아버지와 지하방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냈던 날이다. 이제 대구 장로교병원의 경영인인 김득수씨는 가까스로 그가 북에서 월남한 이야기를 잊는다.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다. 수만명의 기독교인이 자유를 찾아 남으로 월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곳 모든 이들에게는 종교의 반체제에서 탈출할 때 아슬아슬한 이야기들이 있다.

“피괴군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린 죽었구나 생각했죠. 아버지께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말했다.

김의 아버지는 42년간 교회에서 목회자로 임했다. 김의 아버지는 딸자루로 그의 아이들을 숨겨 놓으셨고 자신은 숨지 않았다. 바로 그때 공산군이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김득수씨와 그의 아버지는 뒷뜰 지하방에 숨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 내가 지하방에서 살아 남는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죠” 하나 공산당은 그와 아버지를 끌고 감옥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다음날 사형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밤 한 장교가 김

에게 와서 “당신 기독교인이죠?”라고 물었다. 순식간 거짓말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나도 기독교인이고 전쟁이 나기전 교회에 나가곤 했죠. 당신 오늘밤 도망가세요. 내가 도와주겠소” 김은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놔두고 도망하여 한 미국 초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어느날 미국 초소에 있는 오르간을 보고 홀로 치기 시작했다. 쇼오마크(Shoemaker)라 불리는 미군은 그가 음악재능이 있음을 보고 미국에서 피아노를 주문해다 주었다. 그 다음 10년간 김은 군대 교회예배에서 오르간 반주를 맡았다. 오늘 대구 최초 장로교회에는 어머니날 행사가 있다. 거대한 성체가 2천명의 소리를 반향하고 있고 김득수씨는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르간을 쳤다.

“공산군이 나를 찾아냈을 때 죽었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기독교 보초병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오르간을 친다는 것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반자본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반정부적이지만 반자본주의자들은 아니다"라 했다. 서울대학교 전국대학생연합회 학생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며 우리가 이미 얻은 자유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그러한 자유에 대한 도구가 못됩니다"라고 4학년 학생이 말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은 지상을 통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다. 확실히 현정부가 개혁된다고 하면 공산주의를 "고정된 대안"으로 채택하려는 그릇된 이상주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북한의 실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더우기 미국에 대한 감정이 다소 부정적인데 반해 소련에 대한 감정은 소련이 남북분단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확실한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

"우린 북한보다 더 많은 자유가 있으며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대전에 한 시민이 학생시위를 보고 말한다.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사회, 정치 측면에서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쇄심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몇몇 학생들은 전대통령이나 그의 후계자가 권력을 위해 공산주의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의 정권 탈취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직접 공산주의의 탈취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실제적인 지식을 결코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인 지식으로 젊은이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댓가를 지불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대 차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승리의 표시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음 세대가 확실히 기독교 세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한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여전히 오늘날 학생들의 마음 속에 크게 작용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 있었던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의 불확실한 장래가 걱정스

럽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꼭 차있는 노골적인 정치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해질 때 그때는 다음 세대와 현 세대는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장차 교회의 효과적인 역할에 위협이 따를 것이다.

"종교지도자가 터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성당에 다니는 한 학생은 말한다.

제5장 다음 세대

한국의 안정과 교회의 희망으로서 정치적 관심으로 교회를 찾는 이러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총장 고문으로 계신 호레이스 언더우드씨(Horace Underwood)의 원초적 바램이다. 한국을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 모국으로 부르는 언더우드씨는(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에 장로교 선교사로 파견되어 연세대학을 설립했다) 기독교 교육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 불타는 선교의 정열을 가지고 이러한 바램을 밝혔다.

교육사업은 한국을 20세기로 이끌고 또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계에 확고한 지도력을 주는데 있어 선교계획의 주요 일익을 담당했다. 1908년초 선교사들이 "우린 이제 교육혁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적을 정도였다. 한편 교회의 지도력이 너무 강해서 기독교학교의 교과과정이 비기독교학교의 교과과정으로 쓰이기도 했다.

더우기 이러한 교과과정은 남녀 모두에게 개방된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기독교는 계층간의 장벽을 없애고 여성을 남성위주의 문화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모펏트씨(Moffett)는 "세계적으로 큰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기독교 학교가 한국에 있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렇지만 연세대학교로 온 이래, 언더우드씨는 기독교가 교육에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민감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목격했다. 다른 기독교학교와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에서도 필수적인 예배가 약화되고 기독교교수위원이 약해지고 대학 내에서 수용적인 태도가 연세대학교의 영적 구속력을 미약하게 만들어 버렸다. 언더우드씨는 신앙인들에 의해 세워진 하버드(Harvard) 예일(Yale) 그리고 타학교의 양상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심각

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독교학과 교회가 잠재적으로 약해지는데 기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구속력도 약해지는 것이다.

갈수록 미국내의 장로교파는(연합감리교회) 되도록 빨리 한국 교회와의 100주년 선교에 관한 관련을 청산하려고 한다. 재정지원 뿐 아니라 선교사 파견 숫자를 줄이는 등의 과격한 결정의 주원인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교회가 너무 팽창해서 커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감축 결정에는 2가지 요소가 작용했다고 한다. 첫째는 미국내의 종교단체들이 신학적으로 만민구원설(만민은 결국 구원된다는 설)을 선호함으로써 기독교의 독특한 정신이 희미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로는 이러한 연고로 해서 선교사업 자금후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언더우드씨와 모펏트씨 그리고 스틸씨(Steel)는 선교사업으로 시작한 학교나 병원등이 너무나 빨리 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기존시

설의 존립여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거라고 보고 걱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병원, 학교 같은 원조단체를 물질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는 대학을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로 여기기보다 권력과 힘의 온상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언더우드씨는 말한다.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언더우드씨는 네비우스 계획—즉 선교사를 한국인으로 대체시키는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자신들은 서양으로부터 원조단체를 찾고 있고 또 주요단체들이 꺼려하는 것을 찾고 있다.

“이상하게도 한국 장로교 반수 이상이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절당했다. 확실히 미국교회는 이제 한국교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미국교회의 계획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언더우드)

아주 대조적으로 한국에선 비교적 생소한 남침례교에서는 135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빠른 비

*장로교파나 오순절파나 아니면 둘의 복합형인가

오순절파가 한국에서 날로 번성하고 있어 전통적인 한국의 장로교파가 오순절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서양인들은 한국장로교회 신자의 기도소리를 들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오순절교회 목사들은 카리스마적인 이런 행위를 설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과 신학생들은 초자연적 카리스마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보다는 지적인 해석에 더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우기 노동자 계급이 성령에 심취됨으로 해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성령 이론과 신자의 생활에 있어 성령의 역할에 대해 새로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국부적인 교회 이분법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볼 때 오순절파와 장로교 사이에는 좀더 큰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부분적으로 볼 때 조용기목사 경우처럼 순복음교회의 성도수가 너무 많은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교인들을 순복음교회나 다른 교회로 빼앗기다보니 양을 도둑절한다는 비난이 공공연히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쳐놓고 오순절과 설교자들이 주장하는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볼 때 바르냐의 진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면 한 유명한 오순절 목사는 5중복음

—즉 구원, 치료, 성령, 세례 그리고 축복을 포함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는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한국의 신흥사업계급에도 실제 호소력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독교 가르침에 유교적 가치가 가미된 혼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다.

한국교회 오순절파가 탈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바르게 진상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오순절파의 구성원은 대체로 2차 세계대전 후 세대로 젊다. 그리고 초기 오순절 개척자들은 대부분 신학적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므로 조용기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원칙이 존재할 수 있다. 정규교회를 믿지 못한 지도자는 비록 실용적이긴 하지만 좋은 의미의 사고로부터 나온 일반적인 개념을 유행시킨다. — 이것은 신학적 실용주의 차원에서 권결될 문제이다.

장로교파와 오순절과 둘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장로교는 한국 오순절 신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오순절 측에서도 지도 역량이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오순절교회는 이제 오순절 운동 내용에 대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율로 선교사의 숫자를 무한정 늘릴 계획이다. 그들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동반자적 입장에서 선교사는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선교단(OMS)은 한국에서 세번째로 큰 교파인 복음교파와 해외선교단 산하에 있는 한 단체와 이미 그러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언더우드씨에 의하면 이러한 동반자적인 관계는 그 관계가 지방교회와의 관계이건 아니면 주요 대학과의 관계이건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교회는 다 맹점을 갖고 있어서 저 교회는 이 교회를 이 교회는 저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언더우드씨는 진한다.

겉으로 보아서 양대교회들을 다 개선시킬 수 있는 타협이다. 즉, 양교회들에게 훈련받은 지도자를 제공해주고 건전한 학문과 영적 구속력에 입각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협안이다. 그러므로 언더우드와 그 동년배들이 타협안이 간과되는 것을 보고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1984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을 때 백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의 말씀을 목격하기 위해 여의도 광장에 모여들었다.

강하고 이상적인 장년기에 접어든 한국교회는 오늘날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미 미국사회에서 한국교회는 급격히 성장하여 많은 성도를 배출해 놓고 있으며, 또 아시아의 복음화 의무도 떠맡게 되었다. 심지어 조용기목사는 2000년까지 천만 일본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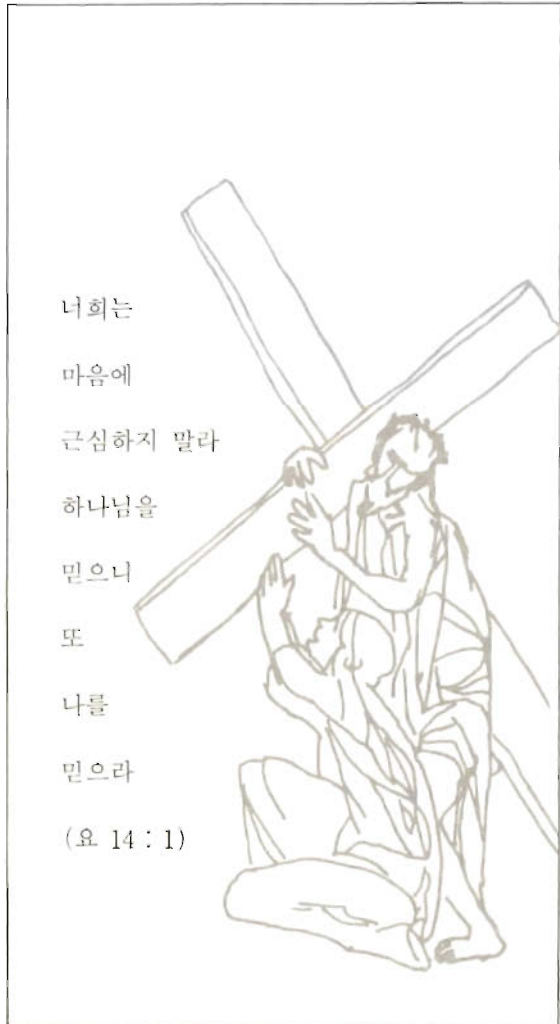
그러나 강하고 힘있는 장년의 시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첫 사랑(예수님과)으로부터 교회를 멀리 떨어지게 위협하는 문제거리로 직면하고 있다. 60 여명이 넘는 교회지도자들이 그러한 문제거리로(위에 언급했음)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이구동성으로 이상주의는 교회가 이러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동적으로 만든 선교사들의 철수로 인해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성장하는 정치 영향의 자취를 따라 있는 장년교회에게 영적인 충성을 다하려는 모형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그러한 사역자들이 오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갈급하는 만큼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성도의 숫자가 많다고 해

서 매사가 양호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나왔을 뿐이다.

어전히 한국교회는 하늘이 보내신 불가사의한 놀라운 교회이다. 주일 아침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도들, 여기저기 복음주의 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서양인들이 주의길에 여기고 있는 성령운동과 관계가 깊다. 이런 점에서 모펏트씨(Moffet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세속적인 역사가라 해도 때로 역사에 있어 불가사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교회 역사가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결정적인 지역이 통계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바울)은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전 3:6)라는 성경구절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유 국 남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지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수난절을 지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과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랑으로 인해 받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이 사랑을 인하여 자신의 전부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축복을 대신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삶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과 그 사랑의 깊이와 함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에 접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안일을 경고하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더욱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옹졸하고 인색한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생과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놀랍고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모든 고난은 이브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고난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날마다 보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악행이 날마다 신문과 방송을 채우고 더욱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피흘려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할 것과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길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만이 자신과 사회를 지키고 죄와 악을 제어하고 뿌리를 뽑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후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길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세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단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죄와 고난과 어둠 뒤에는 사단의 꾀함과 사망 권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을 속여 범죄하게 한 사단은 지금도 거짓의 아버지로써 사람을 속이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성경이 세상 신이라고 부를 만큼 사단의 권세는 크고 놀랍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맛을 보셨으나 성령의 권능을 갖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사단의 꾀함과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들어내어 다시는 속지말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참된 비결과 그 영광스러운 결과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없이 뒤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인격과 전생애에 걸친

수난이었읍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간교함을 알게 되고 그러한 시험이 한 때 일시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모든 순간에 틈만 보이면 닥쳐 오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4:13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나라' 했읍니다. 즉 다시는 시험을 안했다는 말이 아니라 틈만 보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엿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직후에 고난을 회피하라는 시험을 받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십자가 상에 못박히신 상태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시험을 당했읍니다. 5병 2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직후에는 왕을 삼으려는 백성들을 통해 영광의 유혹을 받았읍니다. 이와같은 생애 전체에 걸친 시험과 함께 인격에 관해서도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았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성을, 영혼 사랑의 고뇌와 죽음을 통하여 감정을,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에서 선택하는 가운데 의지를 시험받았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생애와 인격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읍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로서 억울한 고난을 당했읍니다. 주님은 온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므로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오히려 비천한 목수의 장남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철도 들기 전에 피난 길을 가야했고 가난한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많은 동생들을 키워야 했읍니다. 교회 교육외에는 별로 신통한 교육도 받지 못하여 심지어 공생애 기간 중에도 바리새인들에게 갈릴리 시골뜨기요 무식한 자라고 비웃음을 받았고 한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았읍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의 배반과 추종하여 은혜를 입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고함 속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 부끄럽고도 억울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었읍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대신 이 부끄럽고 억울한 고난을 죽음에 이르도록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얼마나 영육간에 불행한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비참한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

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은혜는 귀하며 진리는 확실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이 범람하고 사단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한다 할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면 반드시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경건한 삶이요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축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의의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찌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도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과정입니다. 모든 죄와 고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잡고 자신의 꾀함과 권세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 어리석음과 능력 부족을 틈타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이기고 죄에 지지않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어렵도 없읍니다. 오직 주님을 본받아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야만 하는데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약속된 지혜와 권능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를 생활화하고 무시로 기도하여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삶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옹졸한 마음을 깨뜨리고 잘못된 축복관 속에 안주하여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격과 생활 방식을 회개하고 청산해야 하겠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 사랑의 헌신의 삶을 살므로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의 현대적 의의

남 창 우

(목사 · 초등부 지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이들은 실존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죽음을 초월한 부활 곧 영생을 실현하신 객관적 사건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활절의 의미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의 그 시대적 의미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없다. 여기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단 하나의 통시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부활절의 현대적 의의」란 무엇인가? 왜 「만고불변의 부활의 의미」라 하지 않고 하필 「부활절의 현대적 의의」라 제목을 붙여야 했는가? 그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직면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살려나가야 할까?를 말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의 출발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요, 모든 죄의 세력 앞에서도 꺾끗하고 담대하게 대항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생 최대의 원수인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임을 보여 준다. 죄의 세력에 의한

죽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었다. 죽음은 절대적인 폭군으로 인간 생활을 괴롭혀 왔고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한 인간의 갖가지 방법들 모두는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해매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광명을 안겨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인간이 지금까지 극복해 낼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에 대한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광명을 안겨 주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이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간이 모두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땅의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열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소식을 전해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선 그들은 모든 불의와 억압 등 악에 대한 공포, 또 생명에 대한 공포를 초월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실망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싸여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가 달라져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은 담대한 신앙의 장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용기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용기,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채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던질 수 있었던 순교자의 그 담대함도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원수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에게까지 핍박을 가하는 박해자들에게 앙갚음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박해를 받더라도 전할 것은 전한다는 정신적인 자유를 그들은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자유케 하였는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또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한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만이 세상 권세나 환난을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량

과 도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부터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의 도를 강조한다.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목표와 수준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기듭남)은 성령 세례를 받았나 함이요 세례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죄된 성품을 간직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지난 날의 이기적인 삶을 살던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말한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에 부활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변화는 자연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생활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기 위하여 그 무엇도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생한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함께 모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세계에서의 새 삶의 모습이었다.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찾아 만나야 한다. 그리하여 피곤한 삶 속에서 힘을, 외로움 속에서 위로를, 좌절과 실의에서 용기를, 죽음의 공포와 아픔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찾아야 한다.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부활의 참다운 의미를 모르는 채, 부활의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결코 부활의 증인 노릇은 바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힘이야말로 우리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노릇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 「부활」

(편 집 실)

류부엘은 '인생은 세 가지 구분이 있을 뿐이다. 나고 살고 죽는 거다. 태어날 때 출생의 의식을 지니고 나온 이는 하나도 없고 죽을 때는 죄다 고통 속에 숨겨간다. 살 때는 살고 있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죄다 까먹고 숨쉬는 게 인간들이다'라고 말했다. 살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도 까먹고 숨쉬는 인간들이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더 더욱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소치이다.

성경을 통하여 사후 세계를 확인한 문인(文人) 톨스토이는 인간의 영적인 재생을 주제로 한 '부활'을 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하고 믿게 하려고 의도한다. 먼저 그의 작품 '부활'을 다루기 전에 그의 예술(문학)론을 잠깐 살펴본다.

그의 예술론은 그가 소수층의 쾌락과 안전에 봉사하고 있는 당대 부르조아 예술의 거의 전부를 두고 "우리 시대 및 우리 패거리의 예술은 매춘부가 되었다(예술이란 무엇인가 18장)"라는 분노에서 나타나듯이 「예술의 임무」는 항상 인류의 새로운 종교적 자각(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는), 내지는 역사적 인식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정을 그때 그때 가장 강렬한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예술의 본질적 기능은 결코 기존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느낀 감정을 독자나 청중, 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예술가가 느끼고 전달하는 감정이 어느 특수한 몇몇 소수 엘리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 공통의, 모든 인간을 결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자유주의가 진보적 지배계급의 생활과 이념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정부의 혹독한 감시와 보

복을 항상 의식하면서, 수차례 가택수색을 받으면서도 그는 위대한 저항문학을 만든 것이다.

그가 죽기 10년 전인 72세에 쓴 작품인 '부활(Voskresen)'은 그의 사상, 종교, 예술의 모두를 구현한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최고 수준이요, 예술로서의 유언인 예술적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이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 속에서 카츄샤라는 여인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을 그려내고 네홀류도브를 통하여 인간의 의식을 그려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영혼의 부활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단순히 카츄샤와 네홀류도브의 사랑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네홀류도브의 의식 속에는 기성질서에 대한 부정이 있고 삶의 재생을 가르친 복음서의 지침이 있다.

'부활'은 현대 문명에 대한 일대 비판이요 현대 사회의 허위와 위선에 대한 철퇴인 것이다. 강자에게만 유리한 법률, 부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 허깨비와 같이 응고된 종교와 도덕의 불완전한 사회 조직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있다.

이 소설이 말하는 모든 문제, 즉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 전 사회의 문제이다. 비단 러시아 사회뿐 아니라 문명 세계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세기의 양심을 누르는 무거운 돌인 것이다.

이제 '부활'의 주제를 살펴본다.

누구의 교시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온갖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인식하고 끝없는 완성의 가능성을 보고 그 완성에 전심전력을 경주하는 한 귀족 청년이 서펜서어의 사회형평론을 읽고 토지자유론에 감명을 받아 이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벽촌에 있는 외숙모댁으로 오게 된다. 그 곳에서 외숙모의 양딸 겸

하인으로 있는 검정 딸기같이 반짝이는 새까만 사팔
눈의 카츄사를 알게 되나 열 아홉살의 순결한 청년인
네홀류도브는 그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
하고 떠나버린다.

그러나 3년 후 사관으로 임관되어 소속부대에 부임
하는 도중 외숙모 집에 다시 들러 카츄사를 재회한다.
3년 전의 그에게 여자라는 것은 신비로운 매혹적인 특
별한 존재로서 생각되었으나, 지금의 그에게 여자란
것의 가치는 자기가 이미 시험한 향락기관 중에서 가
장 즐거운 한가지였다. 현재 그는 자기의 건강한 대담
한 동물적인 자아를 자기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의 카츄사에 대한 감정은 3년
전, 19살의 순진무구한 청년의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
결이 가슴 속에서 출렁이는 열애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네홀류도브의 마음 속에도 두 사람의 자아
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자아는 만 사람에게
있어서도 행복이 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아였
으나 또 한 사람은 동물적인 자아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만인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데 조금도 거리낌
이 없는 존재였다. 페테르부르크의 도시생활과 군대
생활로 형성된 이기주의가 광포의 결정을 이룬 이 시
기에는 동물적인 자아가 그의 마음 속에 군림해서 영
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세상사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냐?”

네홀류도브는 카츄사를 범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꺾꺾 눌러버리고 백루우부리의 돈을 그
녀의 손에 쥐어 주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로부터 8년 후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 재판정에 배
석한 네홀류도브는 재판기구의 실수로 유죄판결을 받
고 시베리아 유도형의 선고를 받은 죄없고 가련한 어
피고가 바로 자기가 처녀성을 빼앗으므로 타락의 길을
걸게 되었던 카츄사임을 알고 자기의 너무나도 큰 죄
과에 충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공작 영양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카츄사 앞에서 참회를 하고 그녀와
결혼을 해서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 자기의 죄를 보
상하려고 결심한다.

매춘부로서의 자기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도리어 만족하고 있고 오히려 자랑이라도 하는 것같
은 카츄사의 태도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녀를 위해
원로원과 황제폐하께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카츄

사는 지난 날들을 통하여 네홀류도브를 위시한 모든
남성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기의
그러한 삶에 자존심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네
홀류도브의 청혼을 기절한다.

네홀류도브에게도 “내가 카츄사와 결혼을 하고 시베
리아로 가기로 결심한 것과 재산을 방기한 일은 옳은
것인가?”의 의문이 생기면서 이는 가능성 없는 공상
이요, 부자연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부정적인 생각
이 들다가도 그는 “나쁜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은 나쁜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야수성은 그대로 있
을 때에는 정신 세계에 눌러 본래의 인간 그대로 있
게 되지만 이 야수성이 한번 미적 감정이란가 시적
감정이라는 꺼풀을 쓰고 자기의 껍질을 주장하게 되
면 그때에는 벌써 사람은 온통 삼켜 버리고 수성(獸
性)을 숭배하게 되어 선악도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
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양심의 요구를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

감형의 기쁜 소식을 갖고 시베리아 연안의 수용소
까지 따라간 네홀류도브에게 카츄사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국사범인 시몬손과 결혼하여 시베리아 유형
을 자원한다. 네홀류도브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자
기의 생애를 물어버리려는 카츄사의 사랑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온 네홀류도브는 신약성경을 펼친다. 성
경을 통하여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명이 패
락을 위하여 부여된 것처럼 불합리한 신념으로 살아
가는 인생을 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
는 그 무서운 사악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남을 벌준다는가 교정한다는가 할 힘
이 자기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라고 깨닫는 가운데
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까지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얻었다.

성경을 펼쳐 든 그 때부터 네홀류도브의 신상에 일
어난 모든 것이 이전과는 전연 별개의 의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카
츄사의 정신은 시몬손과 결혼하게 되고 네홀류도브의
의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재생의 싹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카츄사의 신생이요 네홀류도브
의 부활을 의미한다.

로망 롤랑의 평과 같이 ‘부활’은 인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민의 시이며 또한 가장 진실한 시이다. 1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김 경 신
(대한신학교 교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석이요 핵심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파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전 15: 14~18).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부활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사실로 고백하였다.

첫째, 그들에게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스콜라적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성경에 국한시킨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해지는 신적 진리의 전달이라고 못 박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 이상의 것을 계시하신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자기 계시는 성경 말씀의 기록 이전에 일어났다. 창조가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러했다. 그는 자신의 전능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 예인은 어디까지나 그 행동의 해석 행위이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일치단결이나 모세의 출중한 역량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준다. 그의 자기 계시였다.

그 하나님의 계시, 그 가장 웅변적인 말씀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사건—그의 인격이다. 그러나 만약 그의 다시 삶이 없었다면 구속의 역사는 팔레스틴의 한 무덤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막 12: 27). 결과적으로 죽음은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셈이 된다.

둘째, 예수 부활은 그의 선포의 증명이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왕정(王政)—이것이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눅 19: 11~12 참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소망은 예언자들의 중심

명제이다. 그 나라는 두 정점을 가진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계시적 도래가 그 한 정점(頂点)이며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던 예시적(豫示的) 도래가 또 하나의 정점이다. 역사의 종말에 능력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런 통치권은 수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를 얻으실 겸손한 인자에 의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예수는 자신의 수난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막 8: 31).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영광스러운 인자로서 승리에 찬 그의 귀환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예수께서 죽어버리셨다면, 그의 전체 메시지는 부정되고 말았으리라. 그의 하나님 나라 교훈과 종말론적 도래에의 약속은 허구가 되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세째, 예수 부활은 신약교회의 그리스도론적 고백의 기초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단순히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주(Lord)로 고백하였다(롬 10: 9; 행 2: 36; 빌 2: 9~11; 고전 8: 5~6).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입지 못하였다면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 역시 하나의 거짓 말로 전락되고 만다. 만약 예수의 몸이 무덤에서 살아 없어져 가고 있다면, 그는 결코 높이 들림받으신 주님일 수 없다. 그는 결코 원수들에 대한 정복자일 수 없다. 그는 결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를 멸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역사는 아무 목표도, 의미도 목적도 갖지 못한다.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이나 오는 세계에의 소망은, 인간 경험 속에 그 기초가 전혀 없는 공허한 신학적 사색으로 남게 되리라. 인류는 결국 아무 지향점 없이 표류하는 실존이 되고 말았으리라.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종말론적 사건의 역사화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표적이요 온 인류가 소망하는 목표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고전 15: 20)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그것이었다. ㄴ

이종윤 목사님 위임예배

일시 : 1988년

4월 21일(목)오후 7시 30분

장소 : 본 당

1988년 4월21일 오후 7시30분 이종윤 목사님 위임예배가 내빈과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사회로 은혜롭게 시작되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족한 종을 충현교회의 당회장으로 세워주시어 34년 8개월을 시무하게 하시다가 이제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게 하시고 뒤를 이어 충성스럽게 일할 하나님의 종 이종윤 목사님을 보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라고 하신 기원으로 시작된 예배는 본 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시는 윤영탁 목사님의 “그동안 주님께서 김창인 목사님을 이 교회 목자로 세우시고 오직 주님 한분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김창인 목사님을 세우시어 눈물과 땀을 흘리게 하신 결과로 오늘의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제 새로운

당회장님을 맞이하면서 충현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박운선 목사님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8절을 가지고 ‘성역에 대한 책임한계’라는 제목으로 “모범된 성역의 책임 한계는 첫째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되기까지 노력하고 자기를 바쳐야 하고, 둘째로,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무리를 위하여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역자는 성령님이 세우셨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셨다.

이어 위임식 순서에 이르러 그날의 영광스러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사회자 김창인 목사님 내외분과 위임받는 이종윤 목사님 내외분은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악마가 손 못대는 보호를 주시고, 날마다 발전

하는 성공의 복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흘려 사신 생명들을 키우고 이 땅에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세계에 선교하고 싶사오니 사랑하는 중을 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그 기도에도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이어 위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 충성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어 권면과 축사에 이르러 그날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다.

기독교성경교 증경총회장이신 정진경 목사님은 위임 목사에게 권면하시기를 “이종운 목사님께서는 충현교회를 한국복음운동의 센터로 발전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충현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목사님께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모범을 한국교회에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목사님은 학자로서의 학문에 깊은 경험을 가지셨고 또한 종합대학의 총장으로서의 행정의 능력을 가지셨고 여러 해에 걸친 목회의 경험은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회에서 가장 균형있고 조화된 충현교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한국교회에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구조적인 면에서나 목회의 형태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유능한 자격 위에 겸손의 덕을 더 높이 쌓아 충현교회는 물론이지만 한국교회와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빛나는 지도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다.

조항록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은 충현교회 목사님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선두에 서서 김 목사님의 뒤를 이어 가실 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열기만큼 목사님도 힘이 있고 또 충현교회가 기도하는 열기만큼 한국교회가 힘을 얻어서 6천만 우리 동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별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셨다.

또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이신 김준곤 목사님은 “첫째로, 경력에 나타난대로 이 목사님은 제3세계의 신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학자입니다. 평생 학문의 생활을 했고 계속하여 교수, 저술가, 논설 학문적인 신학계에서 알려진 학자인 목사님을 모신 점

에서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그분의 교육적 권위, 경험 그 점에 대하여 특별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100주년을 지나면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전도 못지 않게 훈련과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런 점에서 그의 교육적 권위와 경험과 가지고 있는 비전이 충현교회를 통하여 충분히 발휘될 것을 생각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그의 성서적인 영감, 영성, 보수적인 신앙 또는 복음적인 신앙이 충현교회의 목사님으로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큰 기대를 모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째로, 이종운 목사님의 인간성에 대하여 저는 특별히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무섭고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차갑고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만나보면 순수하고 겸허하고 누구에게나 허물없이 대해주고 뒤가 없고 대인관계에 늘 화합을 도모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영적인 권위는 있지만 대인관계가 너그럽지 못하고 화합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나 이 목사님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감각이 귀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세계속의 한국은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세계 개신교의 중심 기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당에 그는 세계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서구, 미국, 전 세계의 모든 흐름을 알고 있고 그 문화가 몸에 배었고 한국인이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충현교회 목사님으로서 대단히 적합하고 경사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목회자이고 저술가이고 또 나이로 보더라도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 보면 인생의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은 40대 후반이기에 열매 맺는 초가을의 인생계절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전 생애의 경험과 학문과 모든 꿈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되는 인생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사모님을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현모양처요 한국의 정숙한 사모님입니다. 소박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좋은 사모님과 아울러 목사님을 맞이하게 된 점이 축하드릴 일입니다. 또 목사님을 너무 과장하여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그는 갈빈의 머리를 가졌고 요한 웨슬레의 심장을 가졌고, 마르틴 루터의 의지를 가졌고, 또 김창인 목사님의 순교적인 영성과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개신교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 갈 분으로서 저분만큼 적합한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다가 이 목사님은 제가 가까이서 볼 때에 아주 창조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맡겨 놓아도 크게 대성하실 그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좋은 조신을 가진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은 참으로 다행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로, 충현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전의 시기에 목사님이 위임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현교회는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교회로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도 큰 일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센터가 되어야 하고 또 북한선교 뿐만 아니라 민족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데 센터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교회의상이 부각되어야 하고 신자들의 훈련과 말씀을 중심한 생활과 사회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충현교회는 한국민족이 안고 있는 화합과 교회의 일치성 즉 네 교파 내 교파 하며 너무 벽이 많이 쌓고 산산조각이 되고 상처 부성이가 된 한국교회속에서 이 상처를 내 상처로 끌어 안고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충현교회의 눈물로, 이 교회의 아픔으로 끌어 안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선교와 민족의 복음화와 교회의 일치와 생활의 혁신과 경건을 위하여 충현교회가 새로운 모델이 되는 마당에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축사로 그날을 축하하셨다.

갈보리교회 당회장이신 박조준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에 대표적인 교회중의 하나인 충현교회를 35년 동안 키워 오신 존경하는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시면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앞날을 누가 맡아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심중의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종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위임하

여 나가시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마디로 마음이 북 놓입니다.

이 목사님은 충현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원로 목사님의 신앙 노선에 의해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충현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김창인 목사님이 전도사로 충현교회를 35년 전에 처음 시작하여 목사로서 안수받은 다음 처음으로 세례문답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분이 오늘 위임 받으시는 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의 아들이요 실제로 충현교회에서 자랐고 외국에 가서 여러해 동안 공부하고 이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김 목사님이 키워 주셨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횃불을 넘겨 주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현교회의 귀한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는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축하를 하셨습니다.

기념품 증정이 있는 후, 강암구 선생의 축가에 이어 충현교회 당회장으로 위임받으신 이종운 목사님은 “존경하는 김창인 목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현교회 35주년을 목전에 두고 성숙한 장년기에 접어드는 의젓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쉬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해 오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이정표를 찍어주신 김창인 목사님의 뒤를 이어 부족한 종이 충현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케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작심을 하였습니다.

지난 35년간 충현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신 김창인 목사님의 목회원리가 가장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한 목회라고 믿기 때문에 부족한 종도 김 목사님께서 수행하시던 일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세의 십대교회중 하나로 부상한 충현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민족을 향한 복음 사역은 물론이려니와

충현교회의 교구는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20세기 기독교 복음 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세속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회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처럼 사도적인 신앙고백 위에 성경적인 생활원리를 강조하고 신행일치의 모본을 강조하므로 20세기 교회의 모본이 되어보려는 영광스런 자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갈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무지개를 찬란하게 비취 줄것 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는 형제교회들에게는 신앙의 벗이 되어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얽매인 이들에게는 생명과 자유의 시온소가 되어 새 생명을 물불듯 부어주게 되어 줄 사망과 불의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아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세 기둥을 세워 충현교회의 성도마다 영적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요람이요 구원의 도피성이며 은혜의 산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좇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막중한 사명을 위임받은 본인은 주님의 종

으로서 하나님의 양부리를 칠 때에 부득이 함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더러운 소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할 것이며,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종의 도리를 따라 성도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계속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사도들처럼 본인의 복회와 행정의 방향은 이 두가지 틀 안에서 계속 움직여지기 소원합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기 위하여 쉬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창인 목사님 내외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공사 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권면으로 축사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답사를 가름합니다."라는 감격어린 말씀으로 답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인사 및 광고가 있는 후에 찬송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축도로 충현교회 제 7대 당회장목사 위임예배는 시종일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끝났다.











가난한 마음

이 건 숙
(소설가)

3월 초순부터 약 보름간 지리산은 나무액을 마시려는 사람으로 붐빈다고 한다. 가끔 텔레비전에 소개되어서 본 적은 있지만 그런 수액을 마셔 본 적은 없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귀한 액체를 정성스럽게 한 통 담아다 주어서 마셔보니 들척지근하고 맑은 물이 별맛이 없었다. 이 물을 가져온 여집사님은 넓은 땅에 나무를 심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집사님이라 나무에 대하여는 두루 섭렵해 아는 것이 많은 박사님이시다. 그래서 어쩌다 만나면 그분의 강의를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이다.

그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무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랑 받는 줄을 귀신 같이 알고 아주 신비로운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몇 년 전 교회가 새로 지어져서 이사를 했는데 앞뜰이 텅 비어 있었다. 나무 집사님이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기도를 한 끝에 어떤 나무를 캐다 심느냐는 문제에 부딪혔다. 삼십년을 기른 주목이 열 그루 그녀의 앞뜰에 아주 예쁘게 자라 있는데 그 중에도 제일로 그녀의 사랑을 받는 나무가 있었다. 눈에 띄게 귀족적인 나무를 캐다 심자니 삼십년간 드린 정과 사랑이 복받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열 그루 중 제일 못난 놈을 한 그루 빼어다 교회 앞뜰에 심었다. 말이 그렇지만 삼십년을 기른 나무니 제일 못생긴 놈이라도 그녀의 정이 든 것만은 확실해서 그걸 캐면서도 마음이 찡했지만 하나님의 궁정에 심어질 것이니 아픔소리 말고 가라고 명령을 했다나.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문제가 이상한 데서 터진 것이다. 제일 잘 생긴 주목만 빼고 나머지 여덟 그루가 사들배들 죽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이럴 수가! 삼십년을 기른 나무가 하루 아침에 죽어간다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수명이 다 했다면 함께 심은 제일 좋은 놈은 싱싱한데 나머지가 몽땅 죽을 이유가 없지 아니한가. 인부들을 시켜 죽어가는 나무들을 파내게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무 집사님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열지 못했다. 나무뿌리 한가운데에 굴뚝이 들어 허영게 달라붙어 움질거리며 집을 짓고 있었다. 여덟 나무가 모두 똑같은 수난을 당하고 있었다. 굴뚝이들이 나무 밑동을 감아먹어 나무뿌리는 문둥이 손처럼 오그라붙어 있었다. 인부들도 이상하다며 모두 고개를 가우뚱대는 사이 나무 집사님은 안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님! 재게 말씀하소서. 무엇을 재게 가르치려 하셨을

니까?”

이렇게 말해 놓고 울음이 터져나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넌 제일 좋은 것을 내게 바치지 아니했다”

“그래도 주님, 전 삼십 년을 기른 주목 중에서 한 그루를 당신의 뜰에 심지 않았습니까?”

“열 그루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을 심구선 뭘 그러느냐”

철통이 그녀의 머리 뒤를 내쳤다.

그녀는 뛰어나가 단 한 그루, 제일 잘 생기고 귀족적으로 커서 우람한 자태를 과시하는 주목을 캐라고 인부들에게 지시했다.

“그놈은 그냥 뒤도 됩니다. 굴뚝이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공연히 멀쩡한 나무를 건드렸다가 상처를 입히면 해롭습니다”

인부들은 완강하게 머릴 흔들었으나 그 자리에서 캐내게 해서 교회 뜰로 가져다 심었다고 한다.

그 뒤 여덟 그루의 주목은 모두 살아나서 거대한 자태를 자랑하며 여집사님의 안마당을 차지하고 있다. 그 통에 교회 뜰에는 두 그루의 주목이 심어진 셈이다. 여집사님이 지리산 수액을 선물하고 재미있는 주목 이야기를 들려주고 돌아간 뒤 나는 교회를 한 바퀴 돌며 주목들을 둘러봤다. 양쪽에 연산홍을 보초처럼 세우고 자리를 잡은 귀족 주목은 잘 자라서 이 봄에 청청한 잎들을 여진히 자랑했다. 제일 못생겼다고 들은 주목도 열심히 자라서 제법 자태가 우람해져가고 있었다.

문득 암선고를 받고 주어진 날들을 세어가면서 살아가는 친구를 떠올렸다. 재산에 욕심을 내고 지식과 명예에 욕독 광기를 부려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친구였다. 그러나 이제 몇 달 남은 날을 살아야 하는 병이 든 뒤 그 친구는 그야말로 겸손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이 어쩌나 달큰하고 아름다운지 미풍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가도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사소한 딸 한 마디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지략과 모략으로 삶을 영위했던 과거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하다못해 사과나 귤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창조의 마력에 감응하는 친구 곁에서 가난한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감출 수가 없다. **LL**

“용기있는 결단과 능력을”

최 연 옥
(유년부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기 쉽고 또 세상 풍속에서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 때가 많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시련을 극복하는 삶이라고 말한다. 수난과 죽음이 서곡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은 내가 죽은 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미래적인 차원에서 소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있는 결단과 능력을 격려하는 원천과 영감이 된다는 것이다. 절망의 선을 넘으신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인생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이다. 죽음을 초월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 부활의 힘을 통하여 죽음을 조망하던 사도 바울은 외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부활이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anas-ta-sis, αν-α-στ-α-σις)라는 말로 ana- 다시 histemi- 일어섬이란 뜻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말이다. 무덤 건너편을 향해서 환희와 희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부활의 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을 주어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능력이다.

나는 과연 부활의 신앙을 삶 속에서 날마다 생활하고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ㄹ

“자유로이 주님에게 길들여지면서”

백 희 연
(영아부 교사)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시 19: 2~3) 어느 사이 내려앉은 새봄 내음이 천지에 가득하다. 움크려진 찬 겨울동안 생명을 준비해 두신 주님의 흰옷 자락의 분주하심이 따스한 봄별 사이로 한 눈에 보이는데, —막 피어오른 솟불을 밟듯, 아프고 어눌했던 나의 영혼에도 묵은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보태시려나!

사람의 사람됨과 사람이 진실하여야 할 생의 원리를 알길없이 방황하던 어느 젊은 날에,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잘하고 섰던 날보다는 철저히 실패했던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뵈었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다. 그것은 나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부활신앙이 늘 자신을 울조리게 했음이다. 날마다를 살아도 참으로 사람 속에, 내 속에 섰한 것이 없음을 알아가며, 분초마다 발가벗기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나에게, 어느 사이 다가서는 결코 낮설지 않은 이의 겸손한 영혼! 주님은 언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신다. 그때서야 초라해진 나의 영혼은 허물과 죄짐을 내려놓고, 유허의 바다였던 가슴 속을 유순하고 정직한 아이같은 마음되어 자유로이 주님에게 길들여지면서, 어리석게도 감히 주의 길을 막고, 사단의 자리에까지 떨어졌던 스스로의 교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은 계시되어 있었고, 나의 믿음의 연단과 사하심의 역사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이 있어야 했음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생명의 길이 멀고도 험박하지만,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뵈옵는 날까지, 언제라도 감사히 가고 있는 것이다. 주여! 기억하옵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를! ㄹ

“말과 행실로 본을”

김 중 선
(유년부 교사)

태양의 밝고 따사로움이 죽음의 공포로 느껴져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미물들이지만 어느날 자기의 커다란 껍질을 벗어버리게 될 때 생태계의 대 변천을 갖고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을 본다. 또 이십 여일의 따뜻한 깃털 속에서 묵묵히 생명없는 하나의 개체처럼 침묵하던 백의의 타원형 물체가 표피를 부수고 생명체로 탄생되는 이치들을 모든 사람들은 생태계의 원리로 귀착시키고 살아가고 있다.

운명이나 숙명으로 돌려 버리기에는 너무나 침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이제 벗어 버려야 될 때가 되었다. 결코 자의로는 벗어던질 수 없는 욕심의 굴레·정욕의 허울·채면과 가식의 가면들을 커다란 중추의 힘에 의하여 탈피하는 때를 만나야 되겠다. 진정한 중생의 시점에서만이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른뺨을 치고서 왼뺨을 대기도 전에 뒤통수 때려 실신시키는 세상, 숭고한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없어 나는 고무줄의 단면적처럼 회박의 경지에 이르는 현실, 인류의 죄와 죽음을 위해 그 큰 돌부담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위대한 역사가 결코 미물과 조류의 부활에 비교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강건너 불구경 한다면 그분 역시 나에게 대한 강건너 불구경이 될 것이다. 그 큰 역사가 내 희망이고 소망이면 우리의 삶은 모든 허물을 수용하고 무엇을 위해...무엇을 하려고의 참 삶의 대로를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말과 행실로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하신 그분의 포근한 미소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아름답게 그리고 땀뻑하게 승리의 생활을 추출해 내야만 될 것이다. ㄴ

“대화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김 광 호
(중등부 교사)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마다 느낌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도 존재되었음을 확인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는 나의 기쁨은 늘 충만하였지만, 올해의 부활절은 한층 더 뜻 깊은 충만한 감격에 벅차 있지만 하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시며 견딜만한 연단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14명이나 되는 귀한 어린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이기에 나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소중한 생명들이다. 나의 일생에 이토록 귀한 직분을 주셨으며 또한 이를 감당키 위한 우리반 학생들의 열기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에 매주일 우리들의 만남은 더없는 기다림 속에서 즐겁고 새롭기만 하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부활의 기쁨 또한 새롭고 진지하게, 주님과 나와 그리고 14명의 어린 심령들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고자 오늘도 다가서 본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며 대화 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나누게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부활을 더욱더 확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쁨의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ㄴ

“둘이만 아는 미소”

김 정 연
(집사·초등부교사)

아직도 밖의 날씨는 한겨울이다. 학생심방이 한달여 앞당겨진 것은 방학 중에 학생도 같이 심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교사들에겐 심방하는 일처럼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 없을듯 싶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또한 심방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연말에 반 배정표를 받아들고 배정된 학생들의 이름을 읽어가던 나는 잠시 시선이 멈춰졌다. 이건웅, 이건웅, 틀림없는 이건웅이다. ...무척 힘든 학생이었는데, 또?...그러나 이런 생각은 잠시뿐. 나는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건웅이를 맡기신 이는 주님이요,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이기 때문이다.

건웅이는 금년에 4학년이 되는 남학생이다. 무엇을 하려고도 알려고도 앓을뿐더러 주의가 산만하여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머리 위에 올려 놓는가 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와 옆 친구를 방해하다가 다른 선생님에게까지 주의를 듣기가 일쑤다. 숙제를 해 온 적이 거의 없으며 분반공부 시간에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덩치가 커다란 꾸러기이다. 1년동안 건웅이와 생활하면서 여러번 울었던 기억이 난다.

건웅이의 부모님은 K교회의 집사님들로 어머니께서는 여전도회장님으로 봉사하시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교회일을 보신다고 하셨다. 자연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야 저녁뿐인데...서로가 피곤하니가 적당히 생활하셨다고 한다. 건웅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과 둘이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이런 생활은 건웅이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웅이가 안스러웠고, 그래서 나는 건웅이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면서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슬슬 피하기만 하더니 요즈음은 상긋거리며 농담도 걸어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심방이 나의 즐거움이나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금년에 다시 심방을 가게되니 어머니께서 크게 반기시며 건웅이를 다시 선생님이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조그만 사업을 하시기 위해 준비중인데 그일이 시작되면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지금보다도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다. 하는 일들이 자꾸 어긋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고도 하셨다. 며칠 전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건웅이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고 걱정을 하셨단다.

오랜 친구처럼 마주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웅이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얼마후 건웅이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결심을 하신듯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선생님! 정말 잘 오셨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결심이 서는군요. 그동안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 아빠와 정말로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겠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일(사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을 위해 생활하겠어요. 누가 우리 건웅이를 위해 이토록 마음을 써 주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충현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아이들 형제만이라도 충현에 보낸다고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웅이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가정까지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던 심방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나의 마음을 다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발걸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였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심방후 첫 주일 아침, 건웅이는 빙긋이 웃으며 만나지(숙제)를 내 앞에 내밀었다. 1년이 넘도록 거의 해오지 않던 숙제를 해온 것이다. 물론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다.

우리는 둘이만 아는 미소를 지으며 잘 해보자는 다짐을 눈길로 주고 받았다. ㄴ

“자매님 승리하셨습니다”

남 숙 자
(집 사)

미신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불교 가정으로 시집을 온 후 1년도 못되어 그이는 이따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순진한 나는 그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도 믿고 사랑하던 그이가 결혼전 헤어졌던 여자와 다시 만나 어느 아파트에서 동거한다는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백일이 지난 아기의 불에 나의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때 아기와 내 자신이 어찌 그리도 초라하고 애처로워 보였는지 슬픔은 더해갔습니다.

시아머니께서 음식점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이는 가족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했고 이따금씩 집에 온 그이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를 설득해 보려고도 했으나 이미 내 사람이 아닌 그는 통명스러운 말로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살면 될 것 아냐”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이면 피곤한 몸으로 베개를 적시며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덧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습니다. 의욕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이와 동거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 백일이 지났다는 소식이 전화를 타고 내 귀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한가닥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짐과 아기를 데리고 배짱 좋게 집으로 쳐들어왔고 그이는 변명도 사과도 없었고 시댁 식구는 누구하나 그녀에게 충고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한방에서 지내던 한 달 후 천정 오빠의 알선으로 남편이 취직되어 그녀에게는 어디론지 떠난다고 하고 부평으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도 보따리를 싸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자주 식사하시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혈색이 좋지 않고 기쁨이 없는 나의 얼굴을 보며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라고 진도를 하였습니다. 기쁨을 맛본지 오래된 나는 “네? 기쁨요? 정말 기쁨이 와요?” 하고 반색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게가 쉬는 주일에 교회에 오라고 하시면서 약도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가 찬송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두달이 되는 날 둘째 딸이 불에 태어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성심병원 응

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엄마 아파” “아저씨 아파” 하며 우는 소리에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정이 살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은 2~3도 화상으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원은 3일전 한 아기가 이정도 화상으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는 3일간 계속 되었는데 어느덧 걱정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흉터도 없이 22일만에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직장 결인 부평으로 방 한 칸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는 횟수가 줄어 들었고, 우울하던 마음, 그녀와 남편을 미워하던 마음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귀에 들려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떨리는 입술로 3일간 계속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날 남편은 기뻐하면서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내 소원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여자는 밝은 빛 아래서 멋있게 사는 것이예요” 남편은 이제 막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 내 기도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마구 쏟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던 성도님들이 “자매님,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집사 직분과 구역장의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으며 남편도 적극 지원해 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라면서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영혼이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L

“일대 일 전도”

박 윤 석

(권사, 소망부교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사명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고 내가 부득이 할 일’이라는 고전 9:16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져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외면하는 사람,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며 멸시하는 사람 등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많이 있게 된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실망보다는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온다(마태 5:11~12).

전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전도할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런 뒤 적당한 시기에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대 1로 전도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

전도를 하려고 복덕방에 들어 갔었다. 몇 명의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화투를 치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전도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돈 주냐? 밥 주냐?” “예수쟁이들이 더 못됐더라” 는 등...

나는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히 답변해 주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대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도하는 사람의 커다란 기쁨은 전도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

했을 때 크게 느낀다. 꼭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할까?

우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88년도는 우리 모두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외칩시다.

“하나님! 맡겨 주십시오!” 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양 명 자

(집사·장년 2부)

초가을에 을시년스런 바람이 제법 차갑게 외당은 이 밤,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숙여 봅니다.

그토록 어렸던 나의 믿음, 연륜은 자랐어도 하나도 얻은 것 없는 지금의 나를 돌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눈 앞엔 귀도 눈도 막고 발걸음도 멈추리던 지난날의 생소한 그림들이 환영처럼 지나가고 나로인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던 당신의 얼굴이 눈물속에 가물거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귀한 믿음의 세계를 저버림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을 더하게 했던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이제 메마른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하늘보좌를 향해 연약한 두 손을 들어 봅니다.

주여! 나를 찬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정력도 가고 맘도 가버린 이 빈 그릇에 당신의 힘을 부으소서. 참다운 주님의 일군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주님의 성실한 농부로 세우셔서 당신의 은혜를 보답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의 명예, 부귀, 권세를 좇는 어리석은 무리를 용서하사 사랑의 띠로 그들과 나를 매듭지어 주소서. 눈을 들어 천국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오묘한 진리를 듣게 하소서.

악마의 태풍이 잔잔해질 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소로 달리게 하소서. ㄴ

“강한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김 지 혜

(5학년 B, 6반)

내가 1학년때 일이다.

여러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도 가서 들었다. 무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그때 한 오빠가 “너희들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니? 과학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 우주에 떠다니는 돌
같은 것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라 ”

나는 교회에서 들은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서 “아니
야,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

그러자 우리 오빠가 “어쩌면 형이 말하는 게 맞을지
도 몰라, 지혜야 ”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오빠가 그런 말을 했
기 때문이다.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야, 으앙 ”

나는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내가 울고 들어오자
엄마가

“지혜야 왜 우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빠들이 과학적으
로 따지면, 우주에 떠다니는 것들이 모여서 생겼다고
하잖아, 잉잉 ”

“그랬어? 그러면 저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 ”

나는 그때 1학년이라 우리 집에 있던 예수님의 사
진도 어디가 눈이고 코인지 몰랐다.

그 사진 밑에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
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
시라 ”

이런 말이 써 있었다.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인자하신 예
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인 것이다. 나는 그때 느
꼈다.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ㅁ

충현교회 어머니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희 고시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우리들을 보살피 주신 은혜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현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어머니들의 기도와 따뜻한 정성으로 항상 열심히 공부하여 매일 기도으로써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현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날로 번창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뜻하는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이나마 어머니를 뵈올 때면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고 마치 천어머니를 뵈온 기분입니다. 어머니들을 뵈오면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던 사탄의 마음을 물리쳐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곤 합니다.

제가 고시반에 와서 전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충현교회 어머니들을 만남으로써 천어머니보다도 더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은 사악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일이 즐거워지며 생활의 구석구석마다 활력이 넘치며 삶의 보람을 만끽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고 거룩한 인격과 신성함을 만난 것같이 저도 이제서야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마음껏 살아온 태도, 간

절히 바랬던 사악한 욕심들, 남 앞에서 우쭐대고 자랑하던 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신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죄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못난 죄인이 거룩하신 그리스도 면전에 머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이제껏 주를 회피하고 방황의 연속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접하고 충현교회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머니들의 정성과 기도로 자신이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겨울 내내 온누리를 새하얀 휘장으로 덮어 놓았던 것을 걷어 버리고 대지의 초목들이 봄의 열기로 생기를 되찾아 파릇파릇 돌아나듯이, 저 자신의 화사한 꿈도 봄날의 찬란한 태양 빛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펼쳐볼까 합니다.

이제 이 따사한 봄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충현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어머니들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과 은혜 넘치도록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에 아무런 보답도 못해 드린 것을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ㅅ

—인천 교도소 믿음의 아들 올림—

(에스터 4지회에서는 매월 둘째주일 지난 수요일에 인천 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작은 깨달음

박 애 란

(초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지도 만 5년이 되었다. 교사로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고도 두려운 일이었거니와, 특히 심방하는 일은 더 큰 어려움을 자아낸 것 같다. 일년에 봄·가을 두 차례씩 인천과 화곡동, 둔촌동, 반포로 꼬마 친구네 집들을 일일이 심방하기란 직장에 얽매어 생활하는 나로서는 바쁜 시간을 쪼갬다는 것도 짐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방문시 예배인도와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더 더욱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부담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심방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심방을 마무리 하라는 학년 과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장에서 하루 휴가를 받은 어느날, 결석을 자주하는 H네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으로 들어가서, 중1년생 언니, 국교 6년생 그리고 4학년 H, 3살짜리 남동생과 어머니 이렇게 여섯명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마음문을 열지 않으셨지만, 내 편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서 대화를 열어 나갔더니, 내 모습을 보니 결혼 전 당신의 모습이 생각나신다며 H가 왜 교회를 자주 결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H의 어머니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이였다. 그러나 불신자 가정으로 출가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제사를 모시는 문제로 퍽박하기 시작한 남편이 교회의 “교”자(字)만 나와도 화를 내고 심하면 구타까지 할 뿐만 아니라, 성경·찬송은 모조리 찢어 태우고 주일만 돌아오면 자녀들이 교회에 갈까봐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결혼생활을 통해 딸 셋에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돌이 지나도록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에겐 더 큰 시련이었다. 술한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다고만 할 뿐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처럼 신경을 쓰는 의사가 없었다. 어머니 자신도 언약하여 여러 병치레로 지치신 데다가 아들까지 이런 상황이 되고보니 주님이 원망

스럽고 또 한없는 좌절도 되었지만 문득 결혼 전 신앙생활을 할 당시에 들었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이 말씀이 생각이 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어머니께 건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아들의 목도 조금씩 가누게 되었다고 하시며 눈물로 간증을 해 주셨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문제해결이나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중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시려는 마음을 스스로 다지시는 듯했다. 나의 손을 꼭 잡으신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가끔 전화라도 해주시구요” 하시며 H의 주일학교 선생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계셨다. 부족하고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가슴이 벅차왔다. H와 버스타는 곳까지 걸으며 의도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H는 왜 교회에 나올려고 하니? 친구가 보고파서 아니면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조용하게 걸던 H가 내게 시선을 돌리며 당당한 목소리로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요” 하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표현하였다.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H의 한 마디가 내 심장 깊은 곳까지 와 닿았다.

H와 작별을 고했던 뒤 조용히 자문(自問)해 보았다. 주님께서 일년에 52주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몇 주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나왔던가! 매주일일 교회 봉사라는 미명하에, 또 어떤 모임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오지나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도간의 교제와 대화가 얼마나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매주 대하는 친구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 또 청년부 식구들이 웬지 모두 귀하고 소중하게 와 닿는 것이었다.

이제 허물없는 대화로 마음문을 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며 고요히 머리숙여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 본다. ㄴ

인생은 내세를 준비해야

이 성 근
(목사·문서선교사)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듯이 영혼은 없어져 버리고 또한 지옥이나 천국이란 내세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영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죽고 나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을 본 자도 없습니다. 그저 짐작으로 그러려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내세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에 대하여 세상 과학이 무엇이라고 말하던지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어두운 밤에 사람의 발뿌리를 비춰서 돌에 부딪히거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는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먼 거리를 비칠 수는 없듯이 과학의 빛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풍량이 이는 바다와 같고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승객과 같습니다.

배를 타는 것은 바다에 떠 있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 어디엔가 반드시 가야할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의 선상생활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안되고, 자고 일어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안되며, 함께 탄 승객들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해도 안됩니다. 또한 승객들은 누구나 선상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고 각자의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항해 중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피로운 일도 있습니다. 순풍에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항해하는 때는 승객들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며 지껄이기도 하지

만 한 번 폭풍이 일어나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해하는 기간에는 일기에 따라서 천국과 같고 지옥과 같은 일을 번갈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탄 목적은 이런 선상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앉아 도착할 항구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구에 상륙한 후의 일은 그 때에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보자는 미련쟁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항해하는 선상생활은 괴롭지만 항구에 상륙한 후에 될 좋은 일들을 생각하는 자는 항해 중의 고난을 능히 참아 나갑니다.

인생이 가야 할 항구에는 부모나 남편이나 형제들이 반가히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난데없이 수사관들이 달려 들어 배에서 내리는 승객을 체포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령 항해 중에 선상에서 누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 배의 통신사가 무선전화로 입항할 항구의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부두에 닿자 기다리고 있던 형사기동대가 달려 들어 범인을 체포하여 유치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음의 항구에 닿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세가 있어서 좋았으나 그것이 죽음 건너편인 내세에까지 따라 와서 호강을 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내세가 있음

을 알고 미리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없다고 말한 것이 있기도 하고 좋다고 말한 일이 나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없다 없다 하던 내세가 우리의 눈 앞에 나타난다면 큰일입니다.

내세를 믿는 자는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과 용기가 생기고 고해와 같은 세상에 붙어 닥치는 환난의 바람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니 세상에서 즐기고 보자면서 내세를 믿지 않는 자는 환난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자요 자신까지 속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내일이 '있다 없다' 확실히 말한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내세는 확실히 있

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히 9:27).

내세는 인간이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느냐, 뜨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토론을 벌여서 해가 뜨지 않겠다는 편이 이겼다고 하여 해가 뜨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토론의 결과야 어떠하든지 내일 아침에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내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인생 자신이 죽고 나면 엄연히 그의 눈 앞에 내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가 없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성도의 건강관리

젓과 여인의 의무

이 종 석

(장로·의료전도회장·광혜의원장)

누구나 건강해지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나 건강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건강은 날 적부터 잘 타고나야 한다.

건강한 조상을 만나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은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산을 관리하듯이 건강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할지라

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우리들의 건강이 쉽게 약화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 기호품,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으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 기호품, 생활환경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꼭 터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같은 지혜를 어디에서 터득할 것인가? 이 또한 막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행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젖과 여인의 의무」라는 내용에서 우리의 건강 비결을 알아 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젖은 어린애에게 있어서는 생명수요 양식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소젖인 우유와 양젖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우유가 젖을 땀 성장기 애들에게 이용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우유는 액체로 되어 있는 탓으로 단단한 식품을 씹지 못하는 동물이나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이지 일정한 나이를 먹은 성장한 아이들이 계속 먹을 식사는 아닌데 성장한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른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의 젖이 아닌 송아지가 먹는 소젖을 먹는 데 문제가 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땀 때 요즈음 말로 하면 이유식 때 하도 기뻐 경축하는 뜻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창세기 21: 8)

그러면 송아지가 먹는 소젖인 우유에는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유의 단백질의 80%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인간 특히 유아는 필요로 하는 것은 카제인이 아니고 알부민이다. 따라서 우유 중에는 애기가 필요로 하는 알부민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카제인이라고 하는 우유의 단백질의 입자는 극히 미세하여 그대로 흡수되므로 우유를 먹으면 대체적으로 알레르기체질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유 중의 미네랄이 인체의 수분과 전해질의 물질대사의 균형을 깨뜨리고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므로 이빨과 뼈가 약해지는 것이다. 또한 우유에는 모유처럼 자연형의 항체와 살균작용을 가진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사, 알레르기성체질, 천식 등 갖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는 서양 문화인들도 우유를 그대로 마시는 것보다 우유를 발효시켜 신맛을 가진 발효우유로 마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엉기게 하여 만든 요즈음의 요쿠르트라 하는 것을 마시고 있다. 이 엉킨 젖은 구약시대부터 사용했던 흔적이 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사사기 5: 25).

요즈음 말로는 요쿠르트를 주었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엉킨 젖에는 유용한 균이 살아 있으므로 살

균작용이 있고, 대장내부의 부패를 막아주고, 위산을 자연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유보다는 콩국이다. 콩국에는 레시틴과 콜린이 있어 모유의 분비를 촉진시키며, 비타민과 니코틴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며 임신중독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리놀산이란 불포화지방산이 있어 뇌발달에 좋으므로 산모가 콩국을 마시는 것이 유아의 뇌발달을 위해 좋다. 또 콩국 중의 미량의 성분인 구리와 아연은 빈혈, 백혈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어 좋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갓난애기는 우유보다는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서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면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기도했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젖을 먹고 자란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모세도 따지고 보면 바로왕의 딸에 의해 길러지기는 했으나 바로왕의 딸이 부린 그 유모가 모세의 생모였으며 그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 수 있다. 성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유가 아닌 모유는 의학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흡수력이 높아 소화가 잘되고 살균작용과 균에 대한 방어능력, 위산분비 유지, 빈혈을 막아주는 등의 유리한 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간성 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옛날 로마의 황제도 「모유를 주지 않는 여성은 완전한 엄마가 아니다」라고까지 하였다.

요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해지는 것이 모유보다는 우유를 먹는 층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생후 2주일간이 사람의 일생의 체질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시기이고, 엄마의 초유에는 이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꼭 초유를 먹이라고 강조해 준다. 이것이 곧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ㄴ

항상 가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예수의 기적



우리는 4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여러가지 기적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오병이어 사건, 물 위로 걸어가심, 부활 등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라이마루스(H. S. Reimarus)는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것이다' 했고 바울루스(H. Paulus)는 예수의 이적을 제자들의 착각에서 오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이적(또는 표적과 기사)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기적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35여 가지나 되는데 이러한 모든 기적의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서를 보노라면 성경이 보여주는 기적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엇을 일으키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해 주는 표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영적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 / 이 조 응**
(성경연구원 담담전도사)

“중생(重生)”

이 양 우

(목사·전도위원장)

“중생(重生, Regeneration)은 성령으로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며, 성령의 인치심(엡 1:13)의 역사이고 바람과 같이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사역이다.

중생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 무의식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물세례, 혹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요 3:3,5). 그러므로 중생하지 아니한 성도는 엄밀히 말해서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중생의 증거는 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主, Lord)라 고백하게 되며(고전 12:3) ②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머슴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요 1:12).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5-6)”

비잔티움시대의 교회부흥과 교회내의 쇠퇴요소

김 연 이
(전도사·편집위원)

알렉산더 대왕의 통일이 실패하자 군소국가들로 남아 있던 도시국가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통일되었다. 그래서 전무한 로마의 평화(Pax Romana)가 이루어져 약 2세기 동안 유지되었다. 옛 회람은 퇴락하였을 망정 그 언어는 간 곳마다 퍼져 있었고 플라토와 아리스토텔의 위대한 철학의 세계는 옛 신화들을 사라지게 하였다.

로마제국 안에는 물질적 및 문화적 발달이 새 신앙의 보급을 돕는 데 알맞은 단계에 이르렀고 이 광대한 영토에는 큰 도로가 그물눈처럼 종횡으로 통해 있어서 복음 배달부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창 9: 27).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던 5백 여만명의 유대인(디아스포라)들과 70인 번역의 회람어 구약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예배의 기초가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소피로 세례받는 사교(Misterry Religion)가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헬리주의는 완전한 관용과 동양에서 많은 사상을 흡수하게 하였으므로 로마 세계는 유명한 지도자의 특별한 선교적인 노력없이 로마로 갔던 병정들과 상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저절로 전달되었다.

1. 박해와 복음확장

로마는 어떤 종파라도 국가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지 않는 한 관용의 태도를 취했으므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된 초기의 평화로운 잠시 동안에 로마 전국토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후 51년 로마시의 유대인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선생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자 의혹을 받게 되었다.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시의 대 화재사건의 혐의가 네로 황제에게 돌아가자 네로는 이 혐의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씌워서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 정부가 십자가에 처형한 그

리스도를 주(主)라 부름으로 무신론자 혹은 반정부자로 몰았고 피와 살을 먹는다 하여 식인자로 오해되기도 했으며 저녁에 비밀리에 행해진 의식(애찬, 사랑의 키스) 때문에 성범죄자들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기독교의 도덕적 정신적 기준은 종종 로마법과의 불화를 낳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봉화가 되어 궁정의 뜰을 밝히기도 하였고 동물가죽을 쓰고 개에게 던짐을 받아 찢기위 죽기도 하였고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였다. 교회와 성경은 불태우게 되었다.

주후 64년에서 303년에 이르는 어간에 무수한 박해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나가 3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제국 제일의 대 세력으로 성장하여 쇠퇴해가는 로마의 통치기구와 약화되어가는 고전문예의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상태까지 부흥해 갔다.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가 밀란에 모여 종교의 관용에 관한 칙령(Millan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스도교와 이교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콘스탄틴은 전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세멘트 역할을 그리스도교가 해 줄 줄 믿고 노예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형벌을 폐지하고(315년)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규정하여(321년) 주의 날을 이교의 재전일과 동등한 수준의 절기로 인정하였다. 동방 정제 리키니우스를 격파한(323년) 후 기독교를 제국의 공인(公認) 국교 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341년에는 이교도가 행하고 있던 산 제물이 금지되었고 353년에는 우상숭배가 위법시 되어 사원이 폐쇄되었다. 데오도시우스(379~395)에 의하여 기독교는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선언되었다.

2. 비잔티움에서의 기독교 승리

비잔티움은 고대세계와 현대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이 되었고 로마제국을 성립시키고 있던 2개의

요소인 로마법과 국가제도, 그리고 그리이스로부터 물려받은 헬레니즘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욱 강한 조직력을 가진 기독교를 더하고 있었다. 궁전에서는 그리이스 철학이 논의되고 호머의 시가 읊어졌음과 동시에 근동에 선교사를 보내어 러시아인을 개종시켰다. 수 백개의 수도원을 원조하고 신비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비잔틴 세계의 3대 요소는 국민, 황실, 종교(기독교)였다.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를 시초로 하는 수차례의 종교회의에 의하여 그리이스정교의 교의가 확립되었고 유스티니아누스 1세(527~565년)는 교회와 국가 쌍방을 지배하에 두려고 생각하여 기독교 로마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아직도 남아 있는 이교신앙을 일소시키려고 이교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아테네의 대학을 폐쇄하였다. 이로써 이교에 대한 기독교는 승리하였다.

모든 비잔틴인들은 제국의 참된 지배자는 황제도 황후도 아니요 그리스도 그 자신임을 인정했고 복음서에 적혀 있는 신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전적인 공공 광장에서 행진하는 군대의 선두에 돌리고 황제의 관을 쓴 그리스도의 상(像)과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들의 왕”이라는 문구가 화폐표면에 새겨졌다. 법령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 성직자와 신자는 자기들이 신의 선택을 받아 신에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신성한 국민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3. 비잔틴교회내의 쇠퇴요소

① 정종일체(政宗一體)

기독교가 국교로 된 것은 교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로 보이나 이것은 교회의 위험요소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황제는 강력한 통합력을 필요로 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이용했으나 교회는 새로이 부여받은 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구원이 신의 은총에 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도 초래되는 그러한 기독교 사회의 환상에 끌려서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와 관계있는 영역의 한계는 이미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요 18:36)”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종교는 정치의 규제로부터 당연히 분리시켜 두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신앙 고문인 에우세비오스 교황은 황제란 국민의 아버지이며 비호자며 구세주라는 사고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헬레니즘이나 로마의 관례에서 뽑아낸 요소를 기독교 체제에 짝 넣었다. 여기서 기독교 타락의 일보가 시작된 것이다.

② 우상(이콘: 聖畫像)이 예배에 등장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가 콘스탄티노플(비잔틴의 새 이름) 교회를 “모든 교회당의 우두머리”라고 불려 승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도시 도처의 무수한 교회당, 성당 성소는 장엄한 장식과 함께 성유물(聖遺物)이 제국내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믿음, 사랑, 헌신의 표시로서 실려 왔다. 시(市) 전체가 마치 거대한 성물 상자처럼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성처녀 마리아를 사방의 적으로부터 수도를 지켜주는 마음의 기둥으로 숭배했고 공공 장소나 황제의 거처, 평판 좋은 여관이나 권력자의 사저에도 신의 성모를 기리는 성당이나 예배소가 설치되었다. 그리스도, 성처녀 마리아, 성자들의 화상이 공예배중에 점점 더 큰 요소를 이루었고 이것이 우상숭배와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이 많았다.

726년에서 84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콘은 제거되기도 하고 부활되기도 하였다.

③ 수도원 타락

비잔틴 세계에서 정신생활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정식 성직자가 아니라 수도사와 수녀였다. 그런데 신의 자비를 구하고 지도를 해야 할 존재로서 천상과 지상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수도사들은 수도원을 불명예나 빈곤에서 오는 고뇌 또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신처로 생각했고 고위 성직자로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병역 면제와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 수도원은 부를 쌓아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정력은 오직 부자를 만드는 데 경주하고 있었다.

4. 결어

기독교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있던 비잔틴 시대에도 종교적 쇠퇴 위험이 교회 안에 여러가지 형태로 도사리고 있어서 비잔티움의 역사는 광휘와 타락, 허구와 현실, 질서와 혼란, 위대한 승리와 허영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ㄴ

교구활성화에 대한 방안

조영길
(목사·위원장)

지난호에서는 '구역심방과 구역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중에 끝을 다 맺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역예배에 대하여 조금 더 말하고 '교구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2) 구역예배의 일시와 방법

어떤 이들은 구역기도회인가? 구역성경공부 모임인가? 아니면 구역예배인가? 라고 묻는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말할 수 있으나 구역예배란 것이 더 옳다. 구역성도들이 매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구역권속들이 모이는 것을 일명 '오일예배'라고 한다. 수요일저녁예배를 흔히들 삼일예배라고 하는 것과도 같다. 주일이나 삼일되는 날이 수요일이요, 오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이다. 왜 하필이면 주일 지나 오일째 되는 날인 금요일에 구역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대략 아는대로 바로 금요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요구역예배는 구역의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병든 자와 고난 중에 있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며 말씀의 떡을 떼며 전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곧 아침 9시부터 하오 3시 사이에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역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형편대로 시간을 정하여 모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요일에 모여야 한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역권속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잘 알려져 하루를 앞당길 수도 뒤늦출 수도 있겠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대체로 주초 첫날인 주일을 잘 지키고 주중인 삼일 저녁과 주말인 오일예배를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음생활이 양호한 편이 된다.

(3) 구역예배의 효과와 결과

구역예배의 효과와 결과는 한 마디로 아주 큰 것이다. 오늘날 대체로 신자들의 인식에는 구역예배의 불

필요성과 구역심방의 무용론을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구역심방과 구역예배의 기피증에 걸린 비정상적인 교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구역예배를 통하여 구역권속들끼리 믿음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는 물론이요, 모여 말씀의 떡을 떼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도울 때에 큰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것이다. 구역예배에서 은혜받아 힘을 얻으면 믿음도 자라나고 생활의 변화도 체험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왜 구역이 약하여지고 년말에 가서 구역이 없어지고 마느냐? 그 큰 원인은 열심히 구역예배모임을 갖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서로 사랑하며 붙잡아 주고 전도한다면 절대로 구역이 없어지거나 약하여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부흥되고 발전할 것이다. 오늘 도회지 대교회일수록 이 성도간의 코이노니아(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구역단위 혹은 협력구역단위로 구역성도들의 가정을 돌면서 모이는 구역예배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 만약 구역심방도 예배도 부실할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얼마 못가서 낙오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원수 사단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한다. 시험에 들게 하여 낙심케 할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볼 때에, 구역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이 아주 큰 것이다.

3. 교구활성화에 대한 방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며 부흥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범교회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해야겠지만, 교구위원회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선 교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물론 교구위원회 산하 10개 교구의 활성화와 부흥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인 것이다.

(1) 제도적인 개선이다.

교구일꾼들은 매주일 교구별로 모이는 구역예배공과 준비공부시간에 철저히 참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월 전체 교구 간사협의회가 모여, 어떻게 하면 간사들이 교구행정실무에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를 협의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교구마다 교구실무자회를 조직하여 매월 세째주일 이전으로 한 번씩 모여 교구활성화를 위하여 의논하며 기도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교구별 실무자회 구성원은 교구 지도교역자들(목사와 전도사)과 지역장들(장로님들)과 현, 한나 에스더회장들과 간사대표이다. 이들이 모여 각 교구의 사정과 특성을 살려서 교구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채택하여 실행토록 하는데 교구 전체가 협력하고 동참해야 할 일이면 각 교구 지역장대표가 그 안건을 매월 세째주일에 모이는 지역장대표협의회에 가지고 와서 의논하고, 교구위원회에 올려 당회에 허락을 얻을 것은 일도록 되어 있다. 각 교구별 실무자회에서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2) 교구일꾼들의 헌신적인 충성이다.

무엇보다 교구활성화는 실제적으로 교구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열심적이며 헌신적인 충성에 있는 것이다. 부지역장들은(권사님들) 구역장들과 협력하여 철저히 매주 금요일의 구역별 심방을 하고, 협력구역장들은 구역예배를 잘 인도하고, 지역장들은 맡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협력구역예배를 인도하여 부지역장들과 구역장들과 권찰들이 심방을 열심히 하도록 권고하며 감독하고 지도하며, 대심방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지역에는 대심방에 동행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피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교구일꾼들이 출신수범하여 충성하게 되면 분명히 교구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

(3) 교구 일꾼들의 합심과 과감한 실천이다.

무슨 방안이든 교구 실무자회에서 채택하였으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예를 들면 교구별로 자율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일이다.

버스를 운행하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위험성도 있고 운영상 머리 아픈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망설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교구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두 세번씩 타고 교회로 오는 교우들 중에 노약자들과 어린이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은 자願히 힘과 시간에 지쳐서 점차로 낙오하여 가까운 다른 교

회로 가고 만다. 그들을 위하여서는 꼭 교구 버스가 필요한 것이다. 버스를 교구의 사정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운행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이 들고 시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진도하여 얻은 새신자들을 데리고 오기에 아주 편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구마다 용단과 합심으로 버스를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매월 구역에서 10,000원정도를 내고 한나, 에스더회에서 조금씩 협조하고 교구내 생활이 좀 나은 분들이 조금씩 내면 버스 2대는 능히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본다. 모든 일을 어렵게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대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지만 믿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소망적인 꿈을 가지고 나가면 안될리 없는 것이다. 무슨 일든 발전과 부흥을 기대하는 일에는 다소의 모험과 투자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

교구의 활성화를 원하면서 교회건축의 완공이란 일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당면한 문제는 교구활성화요 교회 부흥인 것이다. 바라기는 교구마다 교구실무자회 멤버들의 믿음과 과감한 결단의 행동이라고 본다. 어떤 교회는 요사이 새벽기도회를 2부로 모이며 5,000명의 신자들이 모인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오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버스를 돌리는데 구로동이나 철산동 같은 먼 곳에서도 새벽에 가서 교인들을 싣고 온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교회도 우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주일 낮예배는 물론이요, 저녁 찬양예배도, 삼일 저녁예배도, 오일 구역예배도, 밤 철야기도회도 열심히 모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모아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급선무는 교구별로 교우들을 총동원하여 교회로 출석케 하는 일에 교통수단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믿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교구 성도들이 오일 구역심방과 예배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기도회 모임이나 혹은 야외예배 등을 통하여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하여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다.

교구의 부흥과 활성화는 교회전체의 자생적인 요청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다. 때문에 88년 새 봄과 더불어 우리 교구위 산하 전체 10개 교구가 활성화가 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교회소식



■ 이종운목사님 위임예배

지난 4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본 교회당에서는 이종운목사님의 위임예배가 있었다.

김창인원로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윤영탁목사의 기도, 연합찬양대의 찬양, 박운선목사(합동신학원 명예원장)의 '성역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창인원로목사님의 서약과 공포, 정진경목사(기독교성결교 증경총회장)와 조향목목사(생명의전화 이사장)의 권면, 김준근목사(한국대학 생신교회 대표)와 박조준목사(갈보리교회 당회장)의 축사, 강임구선생의 축송, 당회장 이종운목사님의 답사, 김창인원로목사님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 '88올림픽 전도단 발단 예배

지난 3월 1일(화) 오후 3시 본 교회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세계체육인 선교회 주관으로 '88올림픽 전도단(총재 김창인원로목사) 발단 예배가 각 교계 중진인사 2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본 교회 김창인원로목사님은 찾아오는 각국 선수단 및 보도진, 20 여만명의 외국인들과 사랑과 복음, 우호와 화합정신을 나눔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1천만 성도가 기도하

며 정성을 쏟자고 말씀을 전하셨다.

■ '88세계복음화대성회

지난 3월 7일부터 17일까지 '88세계복음화대성회 여성분과 주관으로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집회가 열렸다.

본 교회 김창인원로목사님(세계복음화대성회 총재)은 제주도, 부산, 목포, 인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특히 '88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위한 기도회와 구국금식기도대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구국금식기도대성회에서 말씀전하시는 김창인원로목사님

■ 3·1절 구국성회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이사장 김창인목사)이 주최한 3·1절 구국성회가 제

난 2월 29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첫째날 강사이신 본 교회 김창인원로목사님은 이사야 60: 1~9절 본문을 중심으로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함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다.

■ 개강예배

지난 3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북한선교원 부설 목회대학원과 기독교 여성대학원의 개강예배가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교회에서 있었다.

본 교회 김창인원로목사님은 시편 18: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힘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 부흥사경회

지난 3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서울교회(목동아파트 소재)에서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사경회가 있었다.

이 성회 강사로 초빙된 본 교회 김창인원로목사님은 첫째날은 뱀후 3: 8~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이란 제목으로, 둘째날은 살전 3: 1~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은'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셨다.

■ 김천, 금릉지역 연합부흥성회

지난 4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 황금동교회(김천 소재)에서는 '88세계복음화대성회 준비를 위한 김천지역, 금릉지역 연합부흥성회가 있었다.

둘째날, 셋째날 강사이신 본 교회 김창인원로목사님('88세계복음화대성회 총재)은 '우리는'(뱀후 3: 8~13), '사랑'(살전 3: 1~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 중·소예배실 입당 감사예배

지난 3월 27일(주일) 오후 7시 중·소예배실 입당감사예배가 중예배실에

서 약 1,100 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예배직전(6시 50분)에 김창인원로목사님, 교역자, 당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를 끊고 입장하여 조영길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임광식장로의 기도, 김창인원로목사님의 '이 집은!'이라는 제목의 설교, 최석주장로의 건축경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완공된 중예배실은 274평으로 철야기도, 새벽기도, 중등부예배, 결혼예식, 기타 집회등에 사용되며, 별도 소예배실은 98평으로 찬양연습, 소규모 예배 및 공연, 기타 특별활동의 발표회등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새신자부실, 다용도실, 대기실(결혼예식시 사용), 부속실, 조정실(중·소예배실의 음향, 조명, 녹음), 준비실등이 모두 완공되었다.



중·소 예배실입당 테이프 절단하시는 김창인원로목사님, 교역자, 당회원

■ '88년도 제2차 성례식

1988년도 제2차 성례식(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 문답이 지난 3월 24일(목), 25일(금)에 있었고 25일(금) 오후 2시 유아세례식과 오후 7시 장년세례식이 있었다.

성례식 문답자수는 학습 82명, 세례 82명, 유아세례 42명, 입교 9명, 개종 3명 등 총 218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3월 27일(주일) 5부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찬자수는 6494명이다.

■ 충현유치원 입학예배

충현유치원 제4회 입학예배가 지난 3월 4일(금) 오후 2시 유치원예배실에서 입학원아 및 학부모,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입학원아는 모두 90명이다.



유치부 입학식에서 축복하시는 김창인원로목사님

■ 1988년도 겨울 계절학교 마쳐

1988년도 겨울 계절학교가 1월 20일(수) 고등부를 필두로 시작하여 3월 13일(주일) 직전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본 교회 및 기도원에서 각 부서별로 시행된 겨울 계절학교에는 400여명의 교사와 3,400여명의 피 교육자가 참가하였다.

■ 제1부찬양대 특강

제1부찬양대에서는 지난 3월 20일(주일)오전 9시 제1부찬양대 연습실에서 이성근목사(장년2부지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란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제1부찬양대 특강, 이성근목사

■ 충현 성경연구원 개강

지난 3월 5일(토) 오후 6시 교육관 212호실에서는 충현 성경연구원 '88년도 1학기 개강예배가 있었다.

오는 6월말까지 실시될 주간성경공부는 270여명, 교사양성부는 100여명, 정교사계속교육은 60여명, 이번 학기에 처음 실시된 찬양대원양성부에는 220여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다.

■ 보육원 방문

제3부찬양대(대장: 조인제장로)에서는 지난 3월 20일(주일) 오후 60여명의 대원들이 그동안 돕고 있던 파주 보육원(원생 120여명)을 방문하여 성금(300,000원)과 꾸민 선물(의류 500여벌, 학용품, 장난감 등)을 전달하고 대원 중에 의료진들이 1일 진료를 하였다. 또한 대원들과 교아 1인이 상씩을 결연하여 계속 돕기로 하였다.



의료진들이 보육원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모습

■ 학부모 초청 좌담회

중등부는 지난 3월 27일(주일) 12시 30분 중등부 예배실에서 중3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교회생활과 학교생활의 조화'(오규원: '88년도 서울대 입학),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학습지도'(김창동집사: 전직교사, 현 학원강사)라는 제목의 강의와 발표를 통한 좌담회를 가졌다.

■ 대학부 특강

대학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주일) 오전 12시 교육관 514호실에서 이귀자 교수(이대음대 작곡과)를 모시고 '크리스찬과 찬양'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 헌혈

지난 3월 13일(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관 201호에서는 청년부 주관으로 헌혈운동이 있었는데 이날 헌혈자는 모두 140 여명이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는 헌혈모습

■ 양로원 방문

청년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주일) 예배 후에 회원 40여 명이 전농동에 있는 '소망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홀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 장년 1부 특강

지난 3월 27일(주일) 오전 12시에 교육관 307호실에서 장년 1부 주최로 이종석장로(광혜의원 원장)를 모시고 '성경에서 본 건강법'(질과 여성의 책무)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 새가정부 특강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주일) 선교관 102호실에서 조동숙박사(연대강사)를 모시고 '태아교육과 신생아 관

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 대심방

교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4일(월)부터 3월 7일(월)까지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 850 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심방을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8일(화)부터 10개 교구별로 춘기대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 제1·2남전도회 지교회 방문

제1남전도회에서는 지난 2월 6일(주일)에 신임원 20명이 금현교회(장병기 목사)를 방문하여 지교회 발전방안을 의논하고 위로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2남전도회에서도 같은날 신임원 5명이 서현교회(오창남목사)를 방문하여 지교회 자립을 위한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 한나 7지회 지원교회 방문

여전도회 한나 7지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목) 지원교회인 동성교회(강원도 동해시, 양상숙목사 시무)를 임원 28명이 방문하여 그곳 교우들과 감사와 교제를 나누었다.

■ 제10기 70인 전도요원 훈련 개강

지난 3월 17일(목) 오후 2시에 선교관 304호에서는 제10기 70인 전도요원 훈련 개강예배가 있었다.

이날 개강된 전도요원 훈련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8주 동안 계속된다.

■ 송화교회 지원

제1남전도회에서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송화교회(이용호목사)를 4월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 성경책 전달

전도위원회 도시전도부에서는 한나·

에스터7 지회 후원으로 지난 3월 19일(토)에 서울 면목동에 있는 기독교병원에 환자전도용 성경책 50권을 전달하였다.

■ N·M·C 지원

여전도회 에스더연합회에서는 지난 4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던 대학부 N·M·C 병원성가 전도단원들의 음악 캠프 행사비 일부를 전달하고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였다.

■ 에덴하우스 방문

에스더연합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주일)에 이양우목사와 실행위원 14명이 지원처인 에덴하우스(장애자 자활기관, 정덕환원장)를 방문하고 위로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88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

장학위원회는 '88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급을 받은 학생 수는 92명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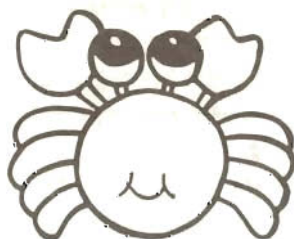
충신신학원 장학생(장학규정 12조 1항 2호) 8명

일반대학과정 장학생(장학규정 12조 1항 3호) 22명

주일학교 모범 장학생(장학규정 12조 1항 4호) 23명

해외 유학 장학생(장학규정 12조 2항 1호) 3명

교역자, 직원자녀 장학생(장학규정 12조 1항 1호) 36명



충현도서관 안내



활짝 문을 연 도서관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충현도서관에서는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책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해 은혜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시간

중등부(같은 나이의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도서관 안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30부터 오후 6:00까지(월요일은 제외)이며, 주일에는 오전 8:30부터 저녁예배전까지입니다.

소장된 책들 중 최근에 구입한 책을 아래에 소개합니다(책명 / 저자 혹은 편자 / 출판사)

- 사랑하는 아버지 / 패트릭 코널리 / 김영사
- 기독교 세계관 / 콜린 채프만 / 나침관
- 아버지 우리 아버지 / 대교문화편집부 편 / 대교문화
- 무장하고서 살라 / 워렌 워어스비 / 나침관
- 현대인과 윤리 / 맹용길 / 기독교문사
- 현대 기독교사상 비판 / 이보민 / 개혁주의신행협회
- 마음 탐구 / 제리 콜린스 / 두란노서원
- 영적 침체 / 로이드 존스 / 새순
- 마태복음 / 조오지 비슬리 / 성서유니온
- 불타는 세계비전 / 봄 포스터 / 내비게이트
- 십자가의 증인들 / 임영천 / 흥성사
- 살아계신 하나님 / 김성광 편저 / 무지개
- 고통의 멍에 벗고 / 김찬국 / 정음출판사
- 천국의 윤리 / 광선희 / 양서각
- 야곱의 하나님 / 테오도르 H. 에프 / 임마누엘
- 사랑의 신비 / 알렌로이 맥기니스 / 삼일서적
- 지식인의 자녀교육 / 이시하라 신지로 / 삼일서적
- 성경 말씀 / 최운정 / 은혜출판사
- 제국과 천국(下) / 김성일 / 흥성사
- 환상 그리고 방황의 끝 / 박형서 / 맥밀란
- 위대한 회심자들 / 휴커 / 생명의말씀사
- 십자가 / 로이드 존스 / 두란노
- 로마서 강해 / 로이드 존스 / C.L.C
- 민중신학 평가 / 나용화 / C.L.C
- 천로역정 / 존 번연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하나님의 창조주가 주는 의미 / 잭 스코트 / 나침관
- 되찾은 생명 / 사 틀라로 / 영양과 건강사

- 그날이 오면 / 한완상 / 한울
- 하나님 나라 / 헤르만리델보스 / 엠마오
- 젊은이를 위한 명상 / 찰스 카우만 / 생명의말씀사
- 화해의 아이 / 돈 리차드슨 / 생명의말씀사
- 그리스도의 십자가 / 존 스토티드 / C.L.C
- 장신 논단 / 장신대출판사 편 / 장신대출판사
- 뚫린 귀 / 양 승헌 / 파이디온
- 빛을 따라서 / 김장원 / 해진서관
- 한국 기독교와 예술 / 송실대 기독교문화연구소 편 / 송실대 기독교문화연구소
-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캠퍼스 물간 / 나침관
- 주제별 성경공부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두란노
- 신구약 성경공부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두란노
- 책별 성경공부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두란노
- 교리별 성경공부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두란노
- 인물별 성경공부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두란노
- 신약성서의 중심메세지 A / Joachim Jeremias / 은성
- 신약성서의 중심메세지 B / Joachim Jeremias / 은성
- 이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 찰스 쉘던 / 세종출판사
- 왜 하나님의 가족을 보존하시는가 / 잭 스코트 / 말씀의집

교 우 동 정

새교우

사당구역	이영선	목동구역	이영인	역삼구역	윤 정	도선구역	정무열	구산구역	김명희
독산구역	김승기	목동구역	박요남	도곡구역	조홍식	도선구역	이복자	당주구역	조성희
독산구역	이인숙	양천구역	김혜숙	역삼구역	김현순	행당구역	조사남	돈암구역	김보라
광명구역	장진동	광명구역	이동순	대치구역	윤 배	성수구역	최종덕	암사구역	차정희
구로구역	김종호	파주구역	이수천	대치구역	신희순	금호구역	황성수	송정구역	이춘배
부천구역	고병갑	미아구역	양명금	논현구역	이의용	자양교육	강기환	송정구역	정윤아
창신구역	윤옥식	장안구역	조복자	대치구역	권순탁	마장구역	정상수	사근구역	이만숙
창신구역	이순화	천호구역	문선수	대치구역	유은희	필동구역	임정숙	사근구역	이정현
창신구역	조경현	잠실구역	김진웅	대치구역	김세종	방배구역	서정옥	남영구역	김재경
창신구역	조미정	잠실구역	천영미	양평구역	이재혁	역삼구역	김용희	신원구역	이석은
답십리	박홍연	잠실구역	김진형	양평구역	이정목	개포구역	황성갑	신원구역	고은주
신당구역	최재일	잠실구역	김진웅	북가좌	조우숙	개포구역	김귀자	역삼구역	유현수
신당구역	이성애	홍익구역	이영임	길음구역	이진선	삼성구역	양승일	역삼구역	심양섭
신당구역	고상호	한남구역	안옥분	중계구역	조정식	개포구역	한미순	역삼구역	윤덕순
동두천	심삼익	만리구역	이귀자	중계구역	김영식	종로구역	김정구	역삼구역	심고운
가평구역	하남기	홍천구역	백종찬	중계구역	조남현	답십리	곽상권	성남구역	오만식
신원구역	김익태	역삼구역	조임선	중계구역	조현숙	답십리	왕다복	성남구역	유병금
둔촌구역	박영숙	역삼구역	임미란	장안구역	노은희	중화구역	임창환	용인구역	조영미
가락구역	정혜영	역삼구역	김숙애	장안구역	조재연	중화구역	김희경	삼성구역	백운임
가락구역	안경옥	역삼구역	장영남	답십리	염희선	잠실구역	한배임	논현구역	윤수만
마천구역	김부연	성남구역	박정연	남양주	안혜숙	잠실구역	홍주의	대치구역	오학민
잠실구역	홍성진	역삼구역	김용희	남양주	한미정	암사구역	최경애	개포구역	이복자
목수구역	김동숙	개포구역	홍미경	천호구역	문선수	둔촌구역	이복구	방배구역	서승남
역삼구역	오유근	논현구역	오현숙	홍익구역	조현순	둔촌구역	한명순	인천구역	강소영
역삼구역	김향숙	논현구역	강선숙	홍익구역	지영도	잠실구역	장명자	송인구역	윤영신
역삼구역	오선호	대치구역	김유득	행당구역	안연심	암사구역	김남진	연남구역	남영래
역삼구역	오충환	대치구역	정정숙	성수구역	황재숙	마장구역	장서운	명륜구역	원현준
역삼구역	유진호	대치구역	김성진	성수구역	오귀녀	역삼구역	이국숙	홍은구역	강미라
역삼구역	임정희	대치구역	김성은	성수구역	황금하	역삼구역	남정현	와룡구역	강병호
역삼구역	유정민	대치구역	김자성	만리구역	강경원	역삼구역	구인숙	미아구역	김재찬
역삼구역	유호상	원지구역	여정남	만리구역	이귀자	성남구역	김명란	삼신구역	김지연
역삼구역	유장호	대림구역	변현주	양평구역	양영남	태평구역	김주한	삼신구역	김 환
도곡구역	정승만	반동구역	손희경	역삼구역	임성계	논현구역	이동준	장위구역	박정아
역삼구역	유두현	수유구역	최성룡	역삼구역	이보영	청담구역	허순자	미아구역	김판봉
역삼구역	이화정	면목구역	정태순	서초구역	박성근	논현구역	최경열	미아구역	김은숙
논현구역	박순희	용두구역	김현숙	서초구역	유재학	논현구역	김찬진	구리구역	최금형
논현구역	석덕기	용두구역	손대석	수서교육	이상국	개포구역	신영균	고덕구역	박기호
삼성구역	김택권	고덕구역	전계현	삼성구역	황용식	개포구역	유혁상	명일구역	백영신
압구정	김건열	고덕구역	최명희	삼성구역	김영민	개포구역	유준상	문정구역	이병민
압구정	이옥희	천호구역	선동춘	불천구역	김태만	논현구역	이동준	용산구역	박창호
사당구역	김종순	천호구역	김재남	계산구역	한영미	삼성구역	박영순	용산구역	고영애
둔촌구역	변윤숙	자양구역	김만석	오류구역	유희경	대치구역	최봉영	한남구역	김현정
광명구역	김말수	자양구역	강영순	면목구역	김성채	압구정	안광선	용산구역	김영화
광명구역	정광섭	잠실구역	이한주	신당구역	백준김	청담구역	김영구	역삼구역	나재웅
부천구역	백종린	서초구역	박권주	신천구역	백준현	불천구역	김은미	역삼구역	김삼자
부천구역	신정훈	방배구역	강영란	잠실구역	천상순	목동구역	김영미	역삼구역	최재구
역곡구역	백혜연	역삼구역	조은비	잠실구역	김정수	가리봉	이성녀	역삼구역	심용자

역삼구역 최연수	홍제구역 김상경	구의구역 임영희	개포구역 오정옥	신당구역 심후숙
논현구역 박남수	홍제구역 신현복	용산구역 박찬원	개포구역 장명자	거여구역 도숙희
청담구역 김학기	홍제구역 김혜정	역삼구역 이정순	논현구역 하귀례	홍익구역 천현우
신사구역 김무수	홍제구역 김진환	역삼구역 이영순	청담구역 명운진	홍익구역 전양구
일원구역 권용훈	와룡구역 조영국	역삼구역 박민숙	신림구역 김효분	광장구역 김해자
일원구역 정인숙	안암구역 이상은	역삼구역 홍정수	관악구역 유덕수	행당구역 김일량
잠원구역 이윤아	보문구역 강영호	역삼구역 강준자	심곡구역 김영자	하원구역 왕태운
봉천구역 고금심	하원구역 문석봉	역삼구역 이상실	화곡구역 서희기	한남구역 이권호
독산구역 서강석	옥수구역 김원숙	역삼구역 이진아	수유구역 성정기	
계동구역 이용운	행당구역 양재덕	역삼구역 엄미순	신당구역 서원근	

결혼

▲김영명군과 이해성양(임봉옥집사 딸) 2월 27일 12시

▲박용식군(박해강씨 한박선집사 아들)과 김계란양 3월 1일 12시

▲홍용진군과 김은영양(김남조씨 김일순집사 딸) 3월 1일 12시 30분

▲이성구군(이근규씨 김명순집사 아들)과 이미경양 3월 1일 오후 1시

▲김용태군과 이동선양(이호근씨 김숙기집사 딸) 3월 1일 오후 2시

▲정동근군과 조미경양(신선원집사 딸) 3월 5일 오후 1시

▲손웅익군(손진성씨 박두희집사 아들)과 이경희양 3월 5일 오후 3시 30분

▲박상길군(본 교회 직원)과 천혜순 양 3월 7일 오후 1시

▲민혜식군과 이수진양(응봉1구역) 3월 8일 12시

▲오성철군(제3찬양대원 심명순집사 아들)과 최희용양 3월 17일 12시 30분

▲조광열군(1교구)과 임미경양(1교 구) 3월 19일 12시

▲한광국군(한광조집사 동생)과 장 영숙양 3월 23일 12시 30분

▲김일생군(김두희 정태순성도 아들)과 한정화양(고등부교사 임순삼집사 딸) 12시

3월 26일 오후 1시

▲유인규군(유병세선교사 이윤호권 사 아들)과 김혜원양 3월 26일 오후 1시

▲송승권군(유금례집사 아들)과 안 옥진양 3월 26일 오후 1시

▲류재선군(대학부교사)과 송효향양 3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홍균군(이봉남집사 아들)과 유 선임양 3월 26일 오후 2시

▲한득수군(한종택 김근자집사 아들)과 안희경양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최성호군(최만수 김선화집사 아들)과 엄정화양 4월 5일 오후 1시

▲이창희군(영아부교사 방만례씨 아들)과 송정희양(초등부교사 김승곤 송정순집사 동생) 4월 5일 오후 2시

▲정유식군(홍제 구역)과 송복화양 (송기홍장로 동생) 4월 5일 오후 2시

▲정상진군(정규희씨 아들)과 현성 림양 4월 5일 오후 3시

▲이창식군(김계자권찰 아들)과 한 명희양 4월 6일 오후 1시

▲조상환군과 전광환양(전희경집사 조명여권사 딸) 4월 9일 오전 12시

▲이영남군(이진호집사 오덕희권사 아들)과 정연옥양 4월 9일 오후 2시

▲임길수군(최을상집사 아들)과 박 숙영양 4월 16일 오후 2시

▲이용식군(3교구 이승옥성도 아들)과 최광희양 4월 16일 오후 2시

▲전성배군(전유조 정두지집사 아들)과 채화라양(채명선씨 딸) 4월 23일

▲서강석군(4교구)과 오미라양 4월 23일 오후 2시

별세

▲이남현권사(성남4구역 이광국집사 부친) 2월 15일 별세

▲이종호집사(이창호장로 부친 이윤 자집사 시부) 2월 16일 별세

▲정인옥성도(충현5구역 유감순권사 부군) 2월 20일 별세

▲김동석성도(김분선권사 부군) 2월 27일 별세

▲전수근집사(해청구역 김효정집사 부군) 3월 18일 별세

▲김말숙성도(상봉2구역 신현길성 도 이학자집사 시모) 3월 20일 별세

▲최정옥성도(홍익2구역 손진성성 도 모친) 3월 29일 별세

▲이용국성도(윤영탁목사 장인 이귀 자사모 부친) 4월 1일 별세

▲이기성집사(이실호집사 부친) 4월 1일 별세

▲박노생권사(공무원 1 구역 정태옥 집사 시모) 4월 1일 별세

▲임무수성도(양지2 구역 임태주전 도사 오빠) 4월 2일 별세

▲이봉옥성도(장성희집사 시모) 4월 3일 별세

▲표경하집사(장안1 구역 표성배성 도 부친) 4월 6일 별세

▲박승록성도(신당5-1구역 이무순성 도 부군) 4월 7일 별세

3·4월의 행사

□ 당회

3월 20일 / 임시당회

4월 1일 / 3월 정기당회

4월 17일 / 임시당회

4월 21일 / 이종윤목사 위임예배

4월 29일 / 4월 정기당회

□ 제직회

3월 6일 / 3월 정기제직회

4월 3일 / 4월 정기제직회

□ 예배위원회

3월 27일 / 제 2 차 성례식

3월 27일 / 중·소예배실 완공감사예배

4월 3일 /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

□ 교육위원회

4월 24일 / 정교사 계속교육 수료식

4월 24일 / 유·초·소년부 어린이 초청잔치(전도집회)

□ 전도위원회

3월 17일 / 제10기 70인전도요원 훈련 개강

4월 10일 / 남전도회 헌신예배

□ 세계선교위원회

4월 15일 / 실행위원 선교의 밤

□ 출판국

5월 1일 / 월간충현 3·4월호 발행

편

집

후

기

4월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달이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비추어 볼 겨를도 없지 않은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하셨음을 믿을 때 행사로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충현교회가 설립된 이래 가장 큰 행사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종윤목사님의 위임예배를 참석치 못한 분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화보 특집으로 지상중개를 하였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8년 3·4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8년 4월 28일 인제

1988년 4월 30일 발간

발행인/김	창인
편집인/김	차생
주간/김	장근
편집장/여	응선
편집위원/조	영길
김	의경
윤	용규
최	석주
조	선근
손	경수
김	연이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젇빛 하늘은 푸른 하늘에 쫓기고
바람도 방향을 잃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연은 봄을 안고 옵니다.

아침은 종달새의 노래를
오후는 따스한 햇빛을 부르고
황혼은 막 트는 새싹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우리 영혼은 사기 충만하며
봄철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탄생합니다.

모두 우리 것인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생각할 때
그의 아름다운 봄 꽃들처럼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음을 봅니다.

—앨리스 데이빗슨—



▲돌 무게가 힘에 벅차다.



▲돌 공사가 이제 교육관 꼭대기와 키 재기를 한다.

7 당회장 이종윤목사님께 건축현황을 설명하다.

